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李圃의 《甲骨文文字學》字素 研究

－ 《說文解字》部首字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池 寿 玉

2011年 2月

李圃의 《甲骨文文字學》字素 研究

－ 《說文解字》部首字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在 哲

池 寿 玉

이 論文을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2月

池寿玉의 中語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李 滢 鎬 ①

委 員 趙 洪 善 ①

委 員 安 在 哲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2月

李圃의 《甲骨文文字學》字素 研究

－ 《說文解字》部首字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

池寿玉

〈目次〉

I. 序論	
II. 甲骨文的 字素·字綴과 《說文解字》部首의 概念	
1. 甲骨文 字素와 字綴의 概念	5
1) 字素의 概念	5
2) 字綴의 概念	7
2. 《說文解字》部首의 概念	8
III. 甲骨文 字素와 《說文解字》部首字의 異同	
1.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같은 글자	10
1)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10
(1)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	10
(2)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	34
2) 準字素	55
2.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다른 글자	60
1)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60
(1)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	60
(2)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	89
IV. 結論	98
參考文獻	100
中文摘要	101
索引	102

I. 序論

甲骨文의 歷史는 3천 3백여 年 前, 商代 後期에 商 王室에서 使用하던 文章 形式을 갖춘 中國 最初의 文字로, 商王의 占卜 內容을 記錄한 甲骨文은 商 王朝 가 남긴 가장 珍貴한 遺物의 하나로 人類文化遺產의 精髓라고 할 수 있다. 以後 周代에는 金文, 秦代에는 李斯에 의해 改造된 小篆이 쓰였다. 이어 漢代에는 隸書, 晋代 以後 楷書로 바뀌었고, 1950年 以後 中國이 簡化字를 만들기까지 6차 례 字體의 變化를 거쳤다. 甲骨文은 1899年, 淸 光緒 25年 當時 北京의 國立 圖書館 金石學者 王懿榮에 의해 最初 發見되었다.¹

甲骨文 研究는 直接的으로 中國文字 研究의 基礎가 되었고, 나아가 古代 社會의 歷史나 文化를 研究하는 重要한 資料가 되었다. 甲骨文이 發見된 이래, 現在 까지 甲骨文에 關聯된 論文과 著書는 萬餘 種에 이르고, 10餘 나라에 걸쳐 研究 에 從事하는 사람은 거의 4千 名에 이른다. 그 중 3千餘 名의 中國人을 除外한 外國人만해도 5百餘 名에 달한다.

甲骨文을 收錄한 책으로는 1899年에 甲骨文이 發掘된 이래, 여러 곳에 散在되 어 있던 16萬餘 篇에 달하는 甲骨片 中에서 資料的 價値가 뛰어난 41,954篇을 모아 13冊으로 集大成한 最大의 甲骨收錄集인 《甲骨文合集》²이 있는데, 이 책은 郭沫若이 主編하고, 胡厚宣이 총 編輯을 맡았다.

또한 徐中舒의 甲骨文字典이 있는데, 이 책은 《說文解字》와 동일하게 ‘一’字에 서 시작하여 ‘亥’字로 끝맺고 있으며, 매 글자는 第1期에서 第5期까지 時代를 區 分하여 收錄함으로써, 字形의 變化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한 것이 特徵이라고 할 것이다.

甲骨文文字學을 專門的으로 研究한 書籍으로는, 趙誠이 《甲骨文文字學綱要》³를 썼다. 이 책은 商代 甲骨文을 對象으로 分析한 書籍으로 甲骨文文字學의 一般論 이라고 할 수 있다.

甲骨文을 專門的으로 研究한 책 中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책으로 李圃의

¹ 梁東淑, 《甲骨文字典 兼 甲骨文解讀》, 月刊 書藝文人畫, 2007, p.4

² 郭沫若, 主編 《甲骨文合集》13冊, 中華書局, 1983

³ 趙誠, 《甲骨文文字學綱要》, 商務印書館, 1993

《甲骨文文字學》⁴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殷墟 甲骨文을 研究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 甲骨文字의 가장 基本이 되는 字素 348字와 添加 要素인 30여 字의 字綴을 基礎로 分析 歸納하였고, 이러한 分析 方法을 土臺로 甲骨文字의 造字 方法과 表詞方法을 敍述하고 있다. 造字方法은 獨體, 合體, 移位, 省變 등 構造的인 側面을 다루었고, 表詞方法에서는 象形, 指事 등 從來의 六書 觀點을 基本으로 하여, 甲骨文을 理解하기 쉽게 分析하였다.

張曉明에 의하면, 1990年代 以後 中國 大陸에서 漢字의 構造的 分析 研究과 關聯하여 主要한 두 가지 發展이 있었는데, 하나는 李圃에 의해 提示된 「字素理論」과 하나는 北京師範大學 王寧의 「漢字構形學」이 꼽혔다고 한다.

李圃는 1993年 「說字素」에서 字素 問題를 提起한 以後, 《甲骨文文字學》에서 甲骨文을 中心으로 詳細한 論議를 펴쳐 왔다. 그리고 2000年 「字素理論及其在 漢字分析中的應用」에서도 古文字 研究上의 ‘字素理論’을 全般的인 漢字의 分析에 應用하고자 하였다. 漢字의 字形 分析에 있어서 ‘字素’라는 用語가 使用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現在까지도 이에 대해 普遍的으로 統一된 概念이 定立되지 않았다.

1995年 上海 學林出版社에서 出版된 李圃의 《甲骨文文字學》은 1984年에 草稿를 썼으며, 以後 10年間 여러 研究者들과의 交流를 통해 修正해 왔다. 이 책은 甲骨文字의 本體, 發生, 文化 등 세 系統을 全面的으로 研究한 책으로, 甲骨文字의 構成原理를 體系的으로 敍述하였는데, 傳統의인 六書 觀點에서 벗어나, 完全하게 完城된 ‘字素理論’을 提示하여 甲骨文字의 여러 가지 問題를 同時에 分析함으로써, 古代文字를 研究하는데 매우 重大한 基準을 設定한 것이다.

李圃가 提示한 字素理論에서의 字素란 漢字의 字素를 가리키는 것인데, 漢字의 字素는 漢字를 이루는 構成要素로 提示된 것으로서, 漢字의 特性에 따른 制約을 嚴格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一般言語學에서 말하는 字素는 典型的인 印度·유럽語와 같은 音素文字를 對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一種의 方塊字인 漢字의 字素와는 本質的으로 그 特性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漢字는 音素文字와는 달리, 소리만이 뜻과 關係되는 것이 아니라 그 形이 外境에 存在하는 하나의 形象이거나 또는 그 形象과 關聯되는 어떤 行爲나 感情

⁴ 李圃, 《甲骨文文字學》, 學林出版社, 1994, p.13

등을 나타냄으로써, 形·音·義가 統一된 하나로서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圃의 《甲骨文文字學》에서 가장 重要한 점이 바로 「獨素字」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獨素字는 古人들의 造字 方法에 의해 造字된 것이 아니라, 外物의 形象이거나 혹은 그 외 다른 行爲나 感情 등이었을 것이다.

한 가지 例를 들면, 甲骨文에서의 ‘牧’은 牛를 따르고 攴을 따르는데, 古代 商代에 글자를 만들 때, 實物의 形象이거나 혹은 그 當時 放牧하는 行爲에서 原形을 描寫한 것으로, 原來부터 있던 獨素字인 ‘牛’와 ‘攴’에 의해 組合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造字法’이란 表詞 機能이 있는 語素로 나타내기 위하여 새로운 글자를 創造하는 方法으로, 그것은 字素의 性質을 把握하여야 그 것을 實現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字素를 正確히 研究하는 것은 漢字를 理解하는 根幹이 될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이러한 字素와 類似한 機能을 가진 《說文解字》部首字와의 比較를 통하여 그것을 理解하고자 하는 것이다.

李圃의 《甲骨文文字學》에는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중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가 238字,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가 86字이며, 「準字素」가 24字로, 이것을 모두 더하면 348字에 이른다.

본 論文에서는 李圃의 《甲骨文文字學》의 甲骨文 字素 중에서 《說文解字》部首字에 該當되는 것을 中心으로, 最初의 甲骨文이 造字되는 過程에서 形·音·義가 어떻게 構成되었는지 그리고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540字를 가려내어 部首字로 만들고, 그 部首 밑에 모든 合體字들을 屬하게 한 方法이 무엇인가를 밝힐 것이며, 또한 甲骨文 字素와 《說文解字》部首字는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가를 李圃의 《甲骨文文字學》을 中心으로 比較 研究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1. □는 한 글자가 빠진 경우.
2. ☐는 한 글자 이상 빠진 경우.
3. []는 글자를 補充해 넣은 경우.
4. 古文字 字形은 文獻處理實驗室 漢字構形資料庫의 2.64版 폰트를 使用하였다.
5. 外字는 文獻處理實驗室 漢字構形資料庫의 2.64版 細明體外字集을 使用하였다.
6. 甲骨文 字形은 李圃의 《甲骨文文字學》字素 348字의 字形을 適用하였다.
7. 字體가 없는 字는 使用者定義文字(EUDC)를 利用하였다.
8. “甲”은 2003년 四川辭書出版社 發行,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을 말한다.
9. “說”은 2006년 岳麓書社出版 發行, 湯可敬 撰 《說文解字今釋》을 말한다.



Ⅱ. 甲骨文的 字素·字綴과 《說文解字》部首의 概念

1. 甲骨文 字素와 字綴의 概念

글자를 이루는 構成 成分의 性質 側面에서 볼 때, 이 構成 成分은 두 種類로 나뉠 수 있는데, 바로 「字素」와 「字綴」이다. 字素는 造字 機能面에서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와 「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즉 「準字素」로 나뉜다. 이 두 種類의 字素는 모두 甲骨文字 造字의 基本 成分이기 때문에 「基本字素」라고도 부를 수 있다. 또한 字綴은 造字 過程에서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킨다.

1) 字素의 概念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字素란 즉 字位(grapheme)를 말하며, 그 어떤 言語의 文字體系(writing system)上 最小의 辨別的 單位를 가리킨다. 音位 및 形位의 概念과 같이 字位는 物質的 特徵을 지니지 않는다. 이는 書寫符號의 相異한 形態들과 주어진 體系 속에서 그것들이 配置된 狀態에 基礎를 둔 抽象的 概念이다. 이런 相異한 變體 즉, 알파벳 文字體系에서의 M, m, M, M 등의 筆記體나 印刷體들은 모두 字位 {m}의 字位變體(allograph)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甲骨文文字學》에서 李圃가 말하는 字素는 漢字의 字素를 가리키는 것으로 音素文字의 「字素」 혹은 「字位」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漢字의 字素는 漢字를 이루는 構成要素로 提示된 것으로서, 漢字의 特性에 따른 制約을 嚴格하게 받고 있다. 이 점은 주로 漢字의 ‘物質性’으로 表現되는데, 여기서의 物質性이란 相對的, 獨立的으로 存在하는 單位가 表意體系 속에서 漢語 語素와 맺는 關係, 다시 말해서 形·音·義와 함께 한데 뭉쳐 있는 關係를 말한다. 또한 李圃는 책에서 字素는 “漢字的結構要素”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글자의 ‘形’의 角度에서 보는 結構要素다. 비록 글자에 3要素說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要素는 李圃가 말하는 要素와 같은 層面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甲骨文 字素는 造字 機能에 따라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와 「依

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즉 「準字素」로 나뉜다. 이 두 種類의 字素는 모두 甲骨文字 造字의 基本 成分이기 때문에 「基本字素」라고도 부를 수 있다.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는 甲骨文字를 單獨으로 構成하는 機能을 지니고 있고, 一定한 造字 方法에 따라 다른 字素와 함께 甲骨文字를 構成할 수도 있다. 甲骨文字를 單獨으로 構成하는 例를 들면, 甲骨文 𦍋(羊)은 羊의 顔面部를 正面에서 본 모양으로서 한 개의 字素가 單獨으로 構成하는 글자이며, 甲骨文 𡗗(大)는 成熟한 어른의 身體를 正面에서 본 모양으로서 역시 한 개의 字素가 單獨으로 構成하는 글자다. 다른 字素와 함께 甲骨文字를 構成하는 例를 들면, 𦍋(美)는 羊의 살지고 큼직함을 통하여 當時 사람들의 文化的 含意, 즉 살지고 큼직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點을 具體的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글자는 𦍋(羊)과 𡗗(大)라는 두 字素가 합쳐져서 構成된 글자다. 𦍋(羊)과 𡗗(大)는 모두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로서 單獨으로 𦍋(羊)과 𡗗(大)를 構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쳐져서 𦍋(美)를 構成할 수도 있다. 甲骨文 中에는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가 모두 324字이며, 그 中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가 238字이고,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가 86字다.

「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즉 「準字素」 역시 글자를 이루는 最小의 構成單位다. 다만 甲骨文에서 그것들은 결코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지니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單獨으로 甲骨文字를 만들 수가 없고, 다른 字素에 依存하여 함께 結合되어야만 甲骨文 複素字를 만들 수가 있다. 獨立的으로 글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音·義와 關聯해서는 檢證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글자를 構成하는 要素다. 게다가 單獨으로 存在할 때에는 形을 통해 뜻을 알 수도 있다. 다만 音에 있어서만은 後世에 推定한 名稱이 附與된 것이다. 이러한 點을 勘案할 때, 그것들을 「準字素」라고 일컬을 수도 있을 것이다. 例를 들면, 𡗗(葬)은 ‘安葬하다’, ‘埋葬하다’ 또는 ‘묻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甲骨文 葬의 ‘𡗗’은 埋葬하려고 파 놓은 窟 모양으로 보이며, ‘?’은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𡗗’은 單獨으로는 造字 機能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𡗗’이 ‘?’에 依存하면 또 다른 形과 音·義를 만들 수 있다.

甲骨文 中에 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準字素」의 數가 比較的 적은데, 大略的으로 보면 총 24字가 된다.

2) 字綴의 概念

李圃의 《甲骨文文字學》에서 字綴은 造字 過程에서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킨다. 이러한 附加的 成分은 事物 및 事物 간의 關係를 나타내는 意味를 假想的으로 表示한 것으로써, 事物의 形象을 實質的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하나의 긴 垂直線 ‘丨’이 𠄎(直) 속에서 하나의 字綴이 되는 것과 같다. 이는 ‘丨’이 똑바름을 나타내는 한 가닥의 線으로서, 假想的인 表示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𠄎 속에서 ‘丨’은 字綴이 아니라 하나의 字素가 된다. 이는 ‘丨’이 公이[杵]⁵의 像을 취하였고, 또는 𠄎(午)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서 明確하게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假想的으로 表示한 것인가 아니면 明確하게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字綴인지 아니면 字素인지를 區分하는 重要한 基準이 된다. 字綴은 形이 音·義와 함께 한 朧치로 합쳐지는 特性을 갖고 있지 않으며, 單獨으로 새로운 글자를 構成할 수도 없다. 다만 字素에 덧붙여서 原來 字素의 音과 義를 變化시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낼 뿐이다.⁶ 그리고 [綴]은 ‘엮는다’, ‘連結하다’, ‘잇다’ 등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므로, 字綴이란 글자를 連結하고 엮는 등의 役割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字根字綴이라는 用語가 있으며, 林宏明의 “殷虛甲骨文字綴合二十四例”와 《說文解字》形義學에 “構成漢字的部件分爲偏旁和字綴兩種”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字綴이란 결코 李圃만이 使用한 唯一한 用語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重視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甲骨文字의 字綴은 상당히 豊富하며, 甲骨文字 時期는 漢字 歷史上 字綴의 數量이 가장 많은 時代라고 할 수 있다. 이는 單音節詞가 優勢한 立地를 점하던, 上古 漢語 造字 表詞의 客觀的 要求를 反映한 것이기도 하다. 後世에 이르러 字綴이 점차 弱화된 것은, 漢語 雙音化의 發展과 聲調의 增加 및 漢字 書體의 進步 등과 같은 要因에 의해 字綴에 分化가 일어나고, 어떤 字綴의 경우는 점차 消滅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基本的인 字綴들로 말하자면, 여전히 오늘날의 漢字 속에도 남아 있는데, 단지 書體의 變化로 인해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뿐이다.

字綴은 하나의 假想的인 符號이며, 表音表意의 方法에서 往往 決定的인 作用을 하게 된다.

⁵ 절구나 방아확에 든 物件을 찌거나 響는 기구. 돌공이, 쇠공이, 절긋공이, 방앗공이 따위가 있다.

⁶ 李圃, 《甲骨文文字學》, 學林出版社, 1994, p.24

2. 《說文解字》部首의 概念

中國文字는 매 글자마다 獨特한 造字의 特色을 지니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각각 저마다 特有한 形體와 意味 그리고 讀音을 가지고 있다. 現在 우리가 볼 수 있는 中國 最初의 文字는 商代 後期 盤庚에서 帝辛의 敗亡까지 273年 동안 殷代 王室에서 쓰던 甲骨文인데, 周代에는 金文으로, 秦代에는 李斯에 의하여 整理된 小篆으로, 다시 秦代 程邈에 의하여 改造된 隸書體로 바뀌었다가, 漢初 王次仲에 의하여 楷書體로 다듬어졌으며, 晋代에 그 定型을 이루기까지 時代의 흐름과 使用上의 便宜에 따라 여러 차례 字形이 變化되어 왔다. 이는 곧 中國文字의 變遷過程인데, 이러한 文字의 造字 根源과 造字 原理 내지 그 變化像이 具體적이고도 體系的으로 研究된 것은 最初의 字書인 後漢의 經學者 許慎의 《說文解字》다.

許慎의 《說文解字》는 東漢 和帝 永元 12年(西元 100年)에서 建光 元年(西元 121年)까지 20여 年에 걸쳐 製作한 15篇으로 된 中國 最初의 體係를 갖춘 字書다. 「說文解字定義序」에 “《說文解字》는 天下에서 第一가는 책으로 《說文解字》를 읽지 않으면 天下의 책을 다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같으며, 《說文解字》에 通達하면 다른 책을 읽지 않아도 學問의 높은 境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顧炎武는 《日知錄》에서 “隸書 이후 六書의 要旨를 밝히어 三代의 文이 오늘날까지 傳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古人의 造字의 根本 理致를 깨달을 수 있게 한 데는 許叔重 《說文解字》의 攻이 크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 대한 아낌없는 讚辭는 古今을 통하여 많은 字書가 있으나, 古人들의 制字의 本源을 밝힐 수 있는 字書로는 오직 《說文解字》뿐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 책 안에 실려 있는 9,353字를 익히면 天地, 鬼神, 山川, 草木, 鳥獸, 蟲蟲, 雜物, 奇怪, 王制, 禮儀, 人間事 등 모든 理致를 훤히 알 수 있는데, 이러한 理致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經典을 읽는다 해도 그 뜻을 明確하게 터득할 수가 없다.

이러한 《說文解字》의 出現은 中國文字의 研究에 劃期的인 發展을 가져왔는데, 특히, 《說文解字》의 偉大性이란 部首의 創案이다. 部首의 創案은 以前의 여러 字書 中 그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었던 몇몇 字書들의 體制와는 달리, 9,353字의 字形을 分析하여 偏傍으로 쓰인 540字를 部首로 만들어 모든 合體字를 該當

偏傍字 밑에 屬하게 하는 方法인데, 이로써 漢字 部首의 基礎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장 基本的인 글자를 部首로 삼은 原理는 文字 生成의 原理와 매우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또한 글자 한 字를 찾기 위하여 책 全體를 뒤적거려야 하는 從來의 번거로움을 없애 字典으로서의 實用性까지 兼備한 獨創이었다. 그 後 많은 책들이 《說文解字》의 部首를 模倣하여 字典을 만들었으니, 우리나라에서 使用하는 玉篇도 그 한 例가 된다. 그러나 그 部首가 糾紊되고 缺點이 補完되어 明代 《字彙》나 清代 《康熙字典》에 와서는 214部首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 配列 역시 劃數가 적은 것에서 많은 글자의 順으로 羅列되었다.

許慎이 「說文叙」에 “今叙篆文，合以古籀”라고 한 말에 의하면, 篆文을 爲主로 하고 古文, 籀文을 모아 都合 萬餘 字에 달하는 글자를 收錄하여 《訓纂篇》의 5,340字에 비해 무려 五千餘 字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自然 여기서 派生되는 問題는 이렇게 龐大한 量의 字數를 어떻게 配列하느냐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으며, 從來의 四字, 七字句로 組合하여 連結하는 形式은 이미 適當하지 못하고, 새로운 方法의 摸索에 따른 部首의 着眼이 必然的인 歸結이라고 하겠다. 즉 分別 部居의 方法으로 不相雜廁의 目的에 到達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每字 字形의 構造 原理에 따라 글자들을 그 根源에 맞게 歸屬시키는 方法으로 이는 漢字의 特性에 꼭 알맞은 未有的 大發明이라 하겠다.

Ⅲ. 甲骨文 字素와 《說文解字》部首字의 異同

1.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같은 글자

李圃의 《甲骨文文字學》字素와 《說文解字》部首를 比較하여 解說이 같은 글자와 解說이 다른 글자로 分類하고, 다시 甲骨文 字素의 造字 機能에 따라, 解說이 같은 글자는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와 「準字素 (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로 나누고, 解說이 다른 글자는 모두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로 나누었다. 이 두 種類의 字素는 모두 甲骨文字 造字의 基本成分이기 때문에 「基本字素」라고도 부를 수 있다.

1)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는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와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로 나뉘며, 甲骨文字를 單獨으로 構成하는 機能을 지니고 있고, 一定한 造字 方法에 따라 다른 字素와 함께 甲骨文字를 構成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甲骨文 𡗗(女)는 女人이 무릎을 꿇어앉아 두 손을 마주 잡고 恭敬하는 모양으로써, 하나의 字素가 單獨으로 構成하는 글자다. 그리고 다른 字素와 함께 甲骨文字를 構成하는 예를 들면, 甲骨文 𡗗(安)은 古代 女人이 집안에서 무릎을 꿇어앉아 있는 文化的 含意가 들어 있다. 즉 女人이 집안에 있어서 便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자는 宀(宀)과 𡗗(女)라는 두 字素가 합쳐져서 構成된 글자다. 두 字素는 모두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로서, 單獨으로 宀(宀) 또는 𡗗(女)를 構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쳐져서 𡗗(安)을 構成할 수도 있다.

(1)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

字綴이란 造字 過程에서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키는 것으로, 事物 간의 關係를 나타내는 意味를 假想的으로 表示하는 하나의

符號다. 字綴이 붙어 있는지의 與否에 따라 嚴格한 意味上的 區分이 된다.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를 사람, 自然, 動物, 植物, 事物, 占/巫堂, 數字와 關聯된 글자로 分類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과 關聯된 글자]

사람과 關聯된 글자에는 亻(人), 頁(頁), 欠(欠), 死(死), 夭(夭)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人 (亻)⁷

甲: 象人側立之形。人側立則僅見其軀幹及一臂。《說文》說形近是。甲骨文象人形之字尚有 𠂇, 𠂈, 𠂉 皆為大字, 象人正立之形; 𠂊 象人跪坐之形, 𠂋 則以下肢彎曲。

解字: 사람이 側面으로 서 있는 形象으로 가까스로 몸과 한쪽 팔을 보는 모양이다. 《說文解字》와 모양이 비슷하다. 그리고 甲骨文中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글자인 𠂇, 𠂈, 𠂉 은 사람이 바로 서 있는 모양으로 모두 ‘大’字이며, 𠂊(𠂊)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양이고, 𠂋(𠂋)은 팔이 아래로 굽어 있는 모양이다.

說: 人 天地之性最貴者也。此籀文。象臂脛之形。凡人之屬皆从人。如鄰切 (rén)。

譯文: 人은 天地의 生物 中에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은 籀文이며, 팔과 정강이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人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人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人’은 사람이 側面으로 서 있는 形象이다. 人에 대한 모양은 多樣하

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87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065

다. 이는 한 사람이 造字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側面과 正面의 모양,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양, 팔이 아래로 굽어 있는 모양 등이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說文解字》의 모양도 甲骨文과 비슷하며 역시 側面의 形象으로 推測이 된다. 甲骨文은 字形을 解釋한 것이고, 《說文解字》는 哲學的으로 解釋한 것이므로, 서로 解釋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頁 (𦣻)⁸

甲: 象人之頭及身，頭上有髮之形。故與省略身形之𦣻，𦣻首字實同。

解字: 사람의 몸과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는 形象이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省略하고 머리만 나타낸 𦣻와 𦣻(首)도 實際로 같은 字다.

說: 頁 頭也。从 𦣻，从儿。古文𦣻首如此。凡頁之屬皆从頁。者，𦣻首字也。胡結切(xie)。

譯文: 頁은 머리다. 𦣻와 儿를 따른다. 古文의 𦣻首는 이 글자처럼 쓴다. 頁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頁의 意味를 따른다. 𦣻도 𦣻首의 ‘首’字다.

甲骨文 ‘頁’은 사람 머리의 側面 모양을 생생하게 描寫했다. 이 글자도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𦣻, 𦣻, 𦣻 등의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있거나 또는 없는 形象이다. 事實은 《說文解字》原文에 “𦣻，古文𦣻首如此。从 𦣻，从儿。”로 모두 열 한 글자여야 하는데, “𦣻，頭也。从 𦣻，从儿。古文𦣻首如此。凡頁之屬皆从頁。 者，𦣻首字也。胡結切(xie).”로 되어 있는 것은 後人들이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생각되며, 許慎의 原文은 아닌 듯하다. 여기에 𦣻는 𦣻에 서도 보인다. 𦣻는 小篆이며, 甲骨文의 解釋과 같이 머리의 形象이다.

欠 (𠂔)⁹

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99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199

甲: 象人蹠而向前張口之形。

解字: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앞을 향해 입을 벌린 形象이다.

說: 𠂔 張口气悟也。象气从人上出之形。凡欠之屬皆从欠。去劔切(qiàn)。

譯文: 欠은 입을 벌려 氣運이 흩어져 나가는 것이다. 氣運이 사람 위로 따라서 나오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欠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欠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欠’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입을 벌린 側面 形象으로 𠂔, 𠂕 등 모양이 多樣하다. 또한 《說文解字》도 입을 벌리고 있는 側面 形象이다. 《說文解字》에서의 모양이나 解釋을 보면, 입을 벌리고 하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无 (𠂔)¹⁰

甲: 象人蹠而口向後張之形，為无之初文。

解字: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뒤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形象이다. 无는 初文이다.

說: 𠂔 飲食气并不得息曰无。从反欠。凡无之屬皆从无。𠂔, 古文无。居未切(jì)。

譯文: 无는 음식이 氣를 막아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을 뜻한다. 欠을 뒤집은 모양으로 構成되었다. 无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无의 意味를 따른다. 𠂔은 无의 古文이다.

甲骨文 ‘无’는 사람의 側面 形象이다. 无는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뒤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데, 氣를 거스르므로 ‘无’字는 ‘欠’字를 左右로 뒤집은 모양이다. ‘无’字는 經典에서 考證해 볼 수 있다. 无의 發音은 ‘居’와 ‘未’의 반절이다.

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98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1182

¹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98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1197

夭 (夭)¹¹

甲: 象人行走時兩臂動之形，或省頭形而作夭，同。《說文》篆文作夭，已失兩臂擺動之形。

解字: 사람이 걸어갈 때 두 팔을 흔들며 움직이는 形象이다. 또한夭은 머리를 省略한 모양으로 같은 글자다. 《說文解字》篆文에夭으로 되어 있는데, 두 팔을 흔드는 모양이다.

說: 夭 屈也。从大，象形。凡夭之屬皆从夭。於兆切(yāo)。

譯文:夭는 구부러지다는 뜻이다. 大를 따르고, 象形이다. 夭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夭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夭’는 사람의 形象이다. 甲骨文은夭,夭으로 되어 있는데, 두 팔을 흔들며 걸어가는 모양으로 보인다. 그리고《說文解字》는 머리가 구부러진 모양을 象形한 것으로 推測된다.夭의 發音은‘於’와‘兆’의 반절이다. 또한 살펴보면‘於’와‘喬’의 반절로도 發音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옛날에는‘夭’의 平聲과 上聲의 뜻이 다르지 않았다. 後代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區別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自然과 關聯된 글자]

自然과 關聯된 글자에는 山(山), 晶(晶), 夕(夕), 石(石), 火(火)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山 (山)¹²

甲: 象山峯並立之形，與《說文》篆文字形略同。甲骨文山字與火字形近

¹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164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414

¹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02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254

易涵，應據卜辭文義具體分辨之。

解字: 산봉우리가 나란히 있는 모양이다. 《說文解字》篆文的 모양과 대략 비슷하다. 甲骨文的 山字와 火字의 모양이 비슷하여 쉽게 混沌될 수 있어서, 卜辭文의 意味를 根據로 具體的으로 分別해야 한다.

說: 𠵓 宣也。宣气散，生萬物，有石而高。象形。凡山之屬皆从山。所間切(shān)。

譯文: 山은 널리 퍼다는 뜻이다. 氣運을 널리 퍼서 萬物을 낳고 돌이 있으며 높다. 象形이다. 山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山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山’은 산봉우리의 形象이다.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모양은 비슷하다. 山의 發音은 ‘所’와 ‘間’의 반절이다.

晶 (晶)¹³

甲: 象衆星羅列之形，為星之本字。後世以此為精光之義。

解字: 많은 별을 羅列한 形象이며, 星의 本字다. 後에는 精光의 意味로 되었다.

說: 晶 精光也。从三日。凡晶之屬皆从晶。 子盈切(jīng)。

譯文: 晶은 精光이라는 뜻이다. 세 개의 日을 따른다. 晶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晶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晶’은 별(星)의 形象이다. 별 가운데 반짝이는 指事 符號를 넣어 晶으로 나타냈고, 音에 의해 ‘맑다’는 意味로 假借되었다. 별은 점차 ‘日’ 하나로 省略되고, 聲部인 ‘生’이 붙어 ‘星’으로 되었으므로 星의 本意는 별이다. 晶, 晶, 晶, 晶, 晶 등 異體字가 많은데 《說文解字》의 모양과 비슷하다. 晶의 發音은 ‘子’와 ‘盈’의

¹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4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25

반절이다.

夕 (D)¹⁴

甲: 象半月之形, 為月之本字。卜辭借月為夕。




解字: 半月의 形象이며, 月의 本字다. 卜辭에서는 月를 빌려 夕으로 하였다.




說: 𠄎 莫也。从月半見。凡夕之屬皆从夕。 祥易切(xī)。

譯文: 夕은 저녁이라는 뜻이다. 달이 반쯤 보이는 모습을 따랐다. 夕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夕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夕’은 반달의 形象이다. 月의 初文으로 ‘저녁’을 나타낸다. 第一期에 저녁이라는 文字를 만들기가 어려워 밤과 關係가 있는 달 속에 작은 劃을 넣어 저녁을 나타냈다. 第五期에 와서는 反對로 第一期의 ‘夕’을 ‘月’로 썼다고 본다.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모양은 비슷하다. 《說文解字》에 ‘莫’은 해가 있으면서도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해가 지려고 하면 달이 점차 나온다. 그래서 ‘夕’은 ‘月’이 반쯤 보인 모양으로 構成되었다. 夕의 發音은 ‘祥’과 ‘易’의 반절이다.

石 (P)¹⁵

甲: 從丩從凵(口), 或省口, 同。丩疑為石刀形之譌變。石刀本作形, 改橫書為豎書遂作形, 而刀筆又將圓弧刻為折角作形。

解字: 丩와 凵을 따른다. 혹은 口를 省略해도 같은 字다. 丩은 石刀의 모양이 잘못 변한 것 같다. 石刀는 본래 의 모양이었는데, 가로쓰기를 바꾸어 세로쓰기를 하면서 마침내 의 모양으로 되었다. 그러나 刀筆은 대부분 鬚을 부러뜨려 새기는 것으로 의 모양이 되었다.

¹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5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33

¹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03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282

說: 石 山石也。在厂之下；口，象形。凡石之屬皆从石。 常隻切(shí)。
譯文: 石은 山의 돌이다. 언덕 아래에 있으며, 口은 돌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石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石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石’은 古代 日常生活에서 使用하던 古代人들의 유일한 道具였다. 특히, 그 時代에는 사냥 道具로 使用하였으며, 고기 등을 자르기 위해서 돌을 갈아서 使用하였다. 《說文解字》와 甲骨文의 모양은 비슷하다. 石의 發音은 ‘常’과 ‘隻’의 반절이다.

火 (火)¹⁶

甲: 象火炎上之形。甲骨文中火字與山字形近易溷，當據具體辭例辨別之。

解字: 불꽃을 뿜으며 타오르는 形象이다. 甲骨文에서 ‘火’字와 ‘山’字의 모양이 비슷하여 서로 바뀌어 混濁하게 쓰였다. 具體의 辭例를 根據로 辨別하였다.

說: 火 燬也。南方之行，炎而上。象形。凡火之屬皆从火。呼果切(huǒ)。
譯文: 火는 불이다. 南方의 行이다. 불이 나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다. 象形이다. 火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火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火’는 불길의 타오르는 形象이다. 甲骨文 ‘火’의 字形은 ‘山’과 매우 類似하나, 아랫부분은 넓고, 윗부분은 좁으며, 銳利하게 되어 있다. 火의 發音은 ‘呼’와 ‘果’의 반절이다.

[動物과 關聯된 글자]

動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隹(鳥), 隹(佳), 虍(虎), 象(象), 羊(羊) 등이 있는데, 甲骨

¹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10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368

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鳥 (𪇐)¹⁷

甲: 象鳥形, 與𪇐(隹)字形有別, 但實為一字, 僅為繁簡之異。

解字: 새의 形象이며, 𪇐(隹)의 모양과는 다르다. 그러나 事實은 같은 字다. 다만 繁體의 異體字일 뿐이다.

說: 𪇐 長尾禽總名也。象形。鳥之足似匕, 从匕。凡鳥之屬都从鳥。都了切(niǎo)。

譯文: 鳥는 긴 꼬리를 가진 날짐승의 總稱이다. 象形이다. 새의 발이匕와 비슷하여匕를 따른다. 鳥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鳥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鳥’는 새의 形象이다. 商族들은 새를 토렘(totem)으로 여겨 神聖視하고, 鳥神에게 祭祀를 올렸다. ‘鳴’字는 ‘隹’를 따르지 않고, ‘鳥’를 따랐다. 《說文解字》에 鳥는 ‘鳥之長尾’라고 하였고, 隹는 ‘鳥之短尾’라고 하였다. 鳥의 發音은 ‘哀’와 ‘都’의 반절이다.

隹 (隹)¹⁸

甲: 甲骨文象鳥形, 隹鳥本為一字, 古文字從隹與從鳥實同。

解字: 甲骨文에서는 새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隹와 鳥는 元來 같은 字다. 古文에 隹를 따르고, 鳥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事實은 같다.

說: 隹 鳥之短尾總名也。象形。凡隹之屬皆從隹。職追切(zhuī)。

¹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426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515

¹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38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492

譯文: 𤝵는 꼬리가 짧은 새의 總稱이다. 象形이다. 𤝵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𤝵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𤝵’는 새의 形象이다. 簡略하게 그린 새의 모양으로,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모양은 비슷하다. 짧은 꼬리를 가진 새를 ‘𤝵’라고 여기고, 긴 꼬리를 가진 새를 ‘鳥’라고 하여 區別한다. 𤝵의 發音은 ‘職’과 ‘迨’의 반절이다.

虎 (𤝵)¹⁹

甲: 象虎形。甲骨文上部為虎頭，下部為虎身及足尾之形，為人足無涉。

解字: 호랑이의 形象이다. 甲骨文 虎字의 윗부분은 호랑이의 머리고, 아랫부분은 호랑이의 몸과 발 그리고 꼬리의 모양이며, 사람의 발과는 相關이 없다.

說: 𤝵 山獸之君。从虬，虎足象人足。象形。凡虎之屬皆从虎。𤝵，古文虎。𤝵，亦古文虎。呼古切(hǔ)。

譯文: 虎는 산짐승 중의 王이다. 虎를 따르며, 虎의 발은 사람의 발 모양을 象形하였다. 象形이다. 虎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虎의 意味를 따른다. 𤝵은 虎의 古文이다. 𤝵도 虎의 古文이다.

甲骨文 ‘虎’는 호랑이의 形象이다. ‘𤝵’은 호랑이의 머리 모양이고, ‘𤝵’은 호랑이의 몸과 발, 꼬리의 모양을 側面에서 본뜬 것이다. 그러나 《說文解字》‘𤝵’은 正面의 모양으로 여겨진다. 虎의 發音은 ‘呼’와 ‘古’의 반절이다.

象 (象)²⁰

甲: 象大象之形。甲骨文以長鼻巨齒為其特徵。

¹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52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69

²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06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310

解字: 코끼리의 形象이다. 甲骨文에서는 긴 코와 긴 어금니가 그 特徵이다.

說: 象 長鼻牙，南越大獸，三年一乳，象耳牙四足之形。凡象之屬皆从象。徐兩切(xiàng)。

譯文: 象은 긴 코와 어금니를 가진 南越 地方의 큰 짐승으로 3년에 한번 새끼를 낳는다. 귀와 어금니와 네 다리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象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象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象’은 코끼리의 形象이다.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모양은 비슷하다. 코끼리는 짐승 중에 가장 큰 것으로, 긴 코와 긴 어금니를 가진 動物로서, 南越 地方에서 살고 있다. 本來 ‘象’을 ‘像’으로 써야 한다. 象의 發音은 ‘徐’와 ‘兩’의 反절이다.

羊 (𦍋)²¹

甲: 象正面羊頭及兩角兩耳之形。按甲骨文實以羊頭代表羊。

解字: 正面에서 본 羊의 머리와 두 뿔 그리고 두 귀의 形象이다. 甲骨文에서는 羊의 머리로 羊을 나타낸다.

說: 羊 祥也。从𦍋，象頭角足尾之形。孔子曰：牛羊之字以形舉也。凡羊之屬皆从羊。與章切(yáng)。

譯文: 羊은 상서롭다는 뜻이다. 𦍋을 따르고, 머리·뿔·다리·꼬리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孔子는 ‘牛나 羊과 같은 글자는 形體를 본떴다.’라고 하였다. 羊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羊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羊’은 양의 뿔과 얼굴을 正面에서 바라본 形象이며, 《說文解字》 ‘羊’은

²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41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506

네 발과 꼬리의 모양을 象形한 것으로,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모양은 비슷하다. 羊의 發音은 ‘與’와 ‘章’의 반절이다.

[植物과 關聯된 글자]

植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來(來), 禾(禾), 黍(黍), 木(木), 未(未)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來 (來)²²

甲: 象來麩之形, 卜辭用為行來字。

解字: 보리의 形象으로, 卜辭에서는 行來의 글자로 使用하였다.

說: 來 周所受瑞麥來麩。一來二縫, 象芒束之形。天所來也, 故為行來之來。《詩》曰: “詒我來麩。”凡來之屬皆從來。洛哀切(lái)。

譯文: 來는 周나라가 받은 祥瑞로운 보리 來麩다. 한줄기의 보릿대와 두 개의 이삭으로, 그 까풀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에 行來의 來로 쓰게 되었다. 《詩經》에 “우리에게 보리를 내려주시니”라고 하였다. 來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來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來’는 보리의 잎사귀와 줄기, 뿌리의 形象이다. ‘來往’이란 意味는 보리가 外地로부터 들어온 것에서 假借된 것으로 여겨진다. 《說文解字》‘來’은 가운데에 ‘一’ 모양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보리를 象形한 것이고, 아랫부분은 까풀의 모양을 象形한 것으로 보인다. 來의 發音은 ‘洛’과 ‘哀’의 반절이다.

禾 (禾)²³

²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616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723

²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7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48

甲: 象禾苗之形，上象禾穗與莩，下象莖與根。

解字: 벼모의 形象이다. 위는 벼 이삭과 잎의 모양이고, 아래는 줄기와 뿌리의 모양이다.

說: 禾 嘉穀也。二月始生，八月而孰，得時之中，故謂之禾。禾，木也。木王而生，金王而死。从木，从秝省。秝象其穗。凡禾之屬皆从禾。戶戈切(hé)。

譯文: 禾는 좋은 穀食이라는 뜻이다. 2월에 처음 나고, 8월에 익는다. 中和를 얻으므로 禾라고 하였다. 禾는 木이다. 木이 旺盛하면 살고, 金이 旺盛하면 죽는다. 木과 秝의 생략형을 따른다. 秝은 그 이삭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禾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禾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禾’는 벼의 이삭과 줄기, 뿌리를 象形한 것이며, 《說文解字》 ‘禾’ 역시 穀食의 모양이다. 卜辭에서는 주로 穀物의 總稱으로 쓰였다. 《毛傳》의 “黃은 좋은 穀食 즉, 嘉穀이다.”에서의 ‘嘉穀’도 역시 ‘禾’를 말한다. 百姓의 飲食으로 ‘禾’보다 귀한 것이 없으므로, ‘嘉穀’이라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嘉穀’이 줄기까지 합쳐진 것을 ‘禾’라 하고, 그 열매는 ‘粟’이라 한다. 또한 ‘米’라고 하며 ‘米’를 ‘梁’이라고도 한다. 禾의 發音은 ‘戶’와 ‘戈’의 반절이다.

黍 (𥝌)²⁴

甲: 從𥝌從氺(水), 𥝌象散穗之黍, 或不從氺, 作數小點以表水點, 同。

解字: 𥝌와 氺를 따른다. 𥝌은 이삭이 흩어진 모양의 기장이다. 혹은 氺를 따르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點으로 水點을 나타내는데 같은 글자다.

²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9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68

說: 黍 禾屬而黏者也。以大暑而(種)[孰], 故謂之黍。从禾, 雨省聲。孔子曰: “黍可為酒, 禾入水也。” 凡黍之屬皆从黍。 舒呂切(shǔ)。
譯文: 黍는 벼의 一種으로, 찰진 成分을 가지고 있는 穀物이다. 大暑에 播種하므로 黍라고 하였다. 禾를 따르고, 雨의 생략형이 發音을 나타낸다. 孔子는 “黍는 술을 빚을 수 있으므로 禾에 水가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였다. 黍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黍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黍’의 𥝱, 𥝲, 𥝳, 𥝴 등은 가장 알맹이가 四方으로 매달려 있는 모양이다. ‘禾’, ‘黍’, ‘稻’, ‘稷’은 각각 粘性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두 種類로 나뉘며, ‘禾’의 이삭은 아래로 드리워져 길게 낱알이 모여 있고, ‘黍’의 이삭은 ‘稻’와 비슷하지만 낱알이 흩어져 있다. 黍의 發音은 ‘舒’와 ‘呂’의 반절이다.

木 (X)²⁵

甲: 甲骨文字上象枝, 中象榦, 下象根, 實不從中。卜辭中無用作本義之例, 只在從木之字中, 如𣎵(桑), 𣎶(棗)等字中尚保留木之本義。
解字: 甲骨文 木의 위는 나뭇가지의 모양이고, 가운데는 줄기 모양이며, 아래는 뿌리의 모양으로 事實, 卍를 따르지 않는다. 卜辭 중에 本義를 使用한 例가 없다. 그러나 木을 따르는 𣎵(桑), 𣎶(棗) 등과 같은 글자 중에는 아직 木의 本義를 간직하고 있다.

說: 𣎵 冒也。冒地而生。東方之行。从中, 下象其根。凡木之屬皆从木。莫卜切(mù)。
譯文: 木은 뚫고 나오다는 뜻이다. 땅을 뚫고 나와 生長한다. 東方의 行이다. 卍를 따르고, 아래는 그 뿌리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木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木의 意味를 따른다.

²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63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741

甲骨文 ‘木’은 위는 나뭇가지고, 가운데의 |은 나무줄기이며, 아랫부분은 나무뿌리의 모양이다. 《說文解字》 ‘未’은 나무가 땅을 뚫고 나온 모양을 본뜬 것으로, 윗부분은 나무가 위로 나오는 모양이고, 아랫부분은 아래로 드리운 모양을 象形하였다. 木의 發音은 ‘莫’과 ‘卜’의 반절이다.

未 (未)²⁶

甲: 按《說文》謂未象木重枝葉形, 可從。

解字: 《說文解字》에서 未는 나뭇가지와 잎이 重疊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한 것을 따른다.

說: 未 味也。六月, 滋味也。五行, 木老於未。象木重枝葉也。凡未之屬皆从未。無沸切(wèi)。

譯文: 未는 맛이다. 6월이면 맛이 든다. 五行에서 木은 未에서 시들게 된다. 나뭇가지와 잎이 重疊되어 있는 形象이다. 未부에 속하는 字는 모두 未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未’는 나뭇가지와 잎이 重疊되어 있는 形象이다. 甲骨文 ‘未’는 나뭇잎이 茂盛한 모양으로 ‘맛이 있다’는 뜻인데 不定詞로 假借되고, ‘맛’이란 意味는 ‘味’字로 代替되었다. 《史記·律書》에서 “未란 萬物이 모두 자라서 맛이 생긴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未의 發音은 ‘無’와 ‘沸’의 반절이다.

[事物과 關聯된 글자]

事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斤(斤), 缶(缶), 皿(皿), 壺(壺), 鼎(鼎)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²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9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43

斤 (㇀)²⁷

甲: 象曲柄斧形, 唐蘭釋斤, 可從。

解字: 자루가 굽은 도끼의 形象이라고 한 唐蘭의 解釋을 따른다.

說: 斤 斫木[斧]也。象形。凡斤之屬皆从斤。舉欣切(jīn)。

譯文: 斤은 나무를 쪼개는 도끼다. 象形이다. 斤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斤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斤’은 자루가 굽어 있는 도끼의 形象이다. 《說文解字》‘斤’ 역시 도끼의 모양이다. 가로획은 도끼머리를, 세로획은 손잡이를, 그 아래는 쪼개진 나무의 모양을 象形한 것이다. 斤의 發音은 ‘舉’와 ‘欣’의 반절이다.

缶 (罇)²⁸

甲: 與《說文》篆文形略同。

解字: 《說文解字》篆文的 모양과 비슷하다.

說: 缶 瓦器。所以盛酒漿。秦人鼓之以節歌。象形。凡缶之屬皆从缶。方九切(fǒu)。

譯文: 缶는 질그릇이다. 술과 장을 담는 그릇이다. 秦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두드리면서 노래 拍子를 맞추었다. 象形이다. 缶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缶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缶’는 物件을 담는 그릇의 모양이다. 그 윗부분은 텅개고,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事物이며, 아랫부분은 物件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說文解字》‘罇’ 역시 술이나 飲食物 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許慎은 “罇은 罇이다.” 라고 하였다. 缶의 發音은 ‘方’과 ‘九’의 반절이다.

²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49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050

²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58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706

皿 (𠂔)²⁹

甲: 象盛食器具之形。

解字: 飲食을 담는 器具의 形象이다.

說: 皿 飯食之用器也。象形。與豆同意。凡皿之屬皆从皿。讀若猛。
武永切(mǐn)。

譯文: 皿은 밥 먹을 때 使用하는 그릇이다. 象形이다. 豆와 構成原理가 같다. 皿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皿의 意味를 따른다. 猛과 같이 發音한다.

甲骨文 ‘皿’은 飲食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形象이다. 《說文解字》‘皿’의 위는 담을 수 있는 모양을, 가운데는 몸체를, 아래는 바닥을 象形하였다. 《孟子》에 “牲殺器皿(희생물과 그릇)”이라고 하였는데, 趙岐의 註釋에서 “皿은 그릇을 덮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皿의 發音은 ‘武’와 ‘永’의 半절이다.

壺 (壺)³⁰

甲: 象壺形。上象蓋，旁為兩耳，中之○象環繞之紋，下為圈足。

解字: 술병의 形象이다. 윗모양은 덮개고, 옆은 두 귀이며, 가운데 ○은 빙 둘러 에워싼 무늬 모양이다. 아래는 둥근 받침이다.

說: 壺 昆吾，圓器也。象形。从大，象其蓋也。凡壺之屬皆从壺。戶吳切(hú)。

譯文: 壺는 昆吾라고도 불리는 둥근 그릇이다. 象形이다. 大를 따르며, 그 덮개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壺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壺의 意味를 따른다.

²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53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72

³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16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418

甲骨文 ‘壺’는 윗부분에 술병을 닫는 덮개와 두 귀가 달려 있는 술병의 形象이다. 《說文解字》 ‘壺’도 술 등을 담을 수 있는 둥근 그릇으로 甲骨文과 字形이 비슷하다. 壺의 發音은 ‘戶’와 ‘姑’의 반절이다.

鼎 (뎡)³¹

甲: 象兩耳腹足之器形。

解字: 두 귀, 배, 발이 있는 그릇의 形象이다.

說: 鼎 三足兩耳，和五味之寶器也。昔禹收九牧之金，鑄鼎荆山之下，入山林川澤，螭魅罔兩，莫能逢之，以協承天休。《易》卦：巽木於[火]下者為鼎，象析木以炊也。籀文以鼎為貞字。凡鼎之屬皆从鼎。 都挺切(dǐng)。

譯文: 鼎은 세 발과 두 귀를 가졌으며, 여러 가지 맛을 내는 珍貴한 器物이다. 옛날 禹나라에서는 九州에서 貢獻한 金屬들을 거두어 들여 荆山 아래에서 솥을 만들어, 山林과 川澤에 들여 놓았는데, 이것은 하늘의 恩賜를 받아 만든 솥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깨비들도 볼 수 없었다. 《易經》의 卦에서 손괘인 木이 火 아래에 있는 것을 鼎으로 하였다. 나무를 쪼개어 불 때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籀文에서는 鼎을 貞으로 하였다. 鼎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鼎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鼎’은 세 발을 가진 솥의 形象이다. 現在를 나타내는 副詞로 ‘方’, ‘正當’, ‘正’의 意味가 있다. 또한 簡化되어 ‘占치다’는 ‘貞’으로 使用되었다. 《說文解字》 ‘鼎’의 三足兩耳(세 발과 두 귀)는 그릇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鼎의 發音은 ‘都’와 ‘挺’의 반절이다.

³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7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45

[占/巫堂과 關聯된 글자]

占/巫堂과 關聯된 글자에는 用(用), 巫(巫), 𠄎(𠄎), 卜(卜)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説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用 (𠄎)³²

甲: 甲骨文用字從卜從𠄎, 𠄎為骨版; 從卜者, 示骨版上已有卜兆。卜兆可據以定所卜可施行與否, 故以有卜兆之骨版, 表施行使用之義。

解字: 甲骨文 用字는 卜과 𠄎을 따르며, 𠄎은 骨版이다. 占을 치는 사람은 骨版 위에 占卦를 나타내어 보인다. 占卦는 정해진 占에 따라 可能的 施行인지 아닌지의 根據로 삼는다. 그러므로 骨版에 나타난 占卦에 따라 實際로 行한다는 意味를 나타낸다.

說: 用 可施行也。从卜，从中。 衛宏說。凡用之屬皆从用。 𠄎，古文用。余訟切(yòng)。

譯文: 用은 施行할 수 있다는 뜻이다. 卜과 中을 따른다. 衛宏의 說이다. 用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用의 意味를 따른다. 𠄎은 用의 古文이다.

甲骨文 ‘用’은 古代 日常生活에서 使用하던 손잡이가 있는 나무통 모양이다. 後에 짐차 ‘쓰다’, ‘使用하다’는 意味로 引申되었다. 《說文解字》 ‘用’은 施行할 수 있다는 뜻이다.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모양은 비슷하다. 用의 發音은 ‘余’와 ‘訟’의 반절이다.

巫 (𠄎)³³

甲: 字形結構不明。唐籙，郭沫若均以此字與《詛楚文》巫咸之巫字同，故

³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354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454

³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496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48

释巫。

解字: 字形의 짜임새는 不分明하다. 唐蘭과 郭沫若 모두 이 字를 《詛楚文》의 巫咸의 巫字와 같으므로 巫堂으로 解釋하였다.

說: 巫 祝也。女能事無形，以舞降神者也。象人兩袂舞形。與工同意。古者巫咸初作巫。凡巫之屬皆从巫。𠃉，古文巫。武扶切(wū)。

譯文: 巫는 巫堂이 祈願하다는 뜻이다. 神을 섬기며, 춤으로써 神을 내리게 할 수 있는 女人이다. 사람의 두 소매가 춤추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工과 構成 原理가 같다. 옛날에 巫咸이 처음으로 巫堂이 되었다. 巫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巫의 意味를 따른다. 𠃉은 巫의 古文이다.

甲骨文 ‘巫’는 두 巫堂이 춤을 추는 모양이라는 說과 巫人들이 쓰는 道具의 모양이라는 說도 있으나, 모두 確實하지 않다. 甲骨文에서는 商代 祭祀의 對象인 神名, 巫神, 巫人으로 풀이된다. 《說文解字》‘巫’은 ‘無’, ‘舞’와 韻母가 같다. 《周禮》에서는 “女巫無數”, “旱暵則舞雩”라고 하였고, 許慎은 “能以舞降神”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巫’字는 춤추는 소매를 象形한 것으로 여겨진다. 巫의 發音은 ‘武’와 ‘扶’의 반절이다.

𠃉 (𠃉)³⁴

甲: 𠃉象卜用之牛肩胛骨形，即《說文》𠃉字初形。上部之𠃉象骨白之下凹，下部之𠃉象牛肩胛骨上歛下侈之形。

解字: 𠃉은 占을 칠 때 使用하는 소 어깨뼈의 모양으로, 《說文》 𠃉字의 始初 모양이다. 윗부분의 𠃉은 關節의 아래가 오목한 모양이며, 아랫부분의 𠃉은 소 어깨뼈의 위가 오므려져 있고, 아래는 넓은 모양이다.

³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46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559

說: 冎 別人肉置其骨也。象形。頭隆骨也。凡冎之屬皆从冎。 古瓦切(guǎ)。

釋文: 冎는 사람의 살을 도려내고 뼈만 남겨둔 것이다. 象形이다. 머리의 튀어나온 뼈다. 冎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冎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冎’는 商代 王室에서 占을 칠 때, 使用하는 짐승 어깨뼈의 形象이다. 《說文解字》 ‘冎’의 윗부분은 크고, 아랫부분은 작은 모양으로, 뼈가 튀어나온 것을 象形한 것으로 여겨진다. 冎의 發音은 ‘古’와 ‘瓦’의 반절이다.

卜 (卜)³⁵

甲: 卜正象灼龜後兆璽縱橫斜出之狀。卜兆先有直坼，而後有斜出之裂紋，裂紋或向上，或向下，卜人據此以判吉凶。

解字: 거북을 구운 후, 兆朕을 나타내는 금이 아무렇게나 비뚤게 생겨난 모양이다. 原來 곧게 갈라진 금이 後에 비뚤게 갈라진 무늬로 되어 占의 兆朕이 나타나는데, 갈라진 무늬가 위로 向하거나 혹은 아래로 向하기도 한다. 이것을 根據로 占치는 사람은 吉凶을 判斷하였다.

說: 卜 灼剥龜也，象灸龜之形。一曰：象龜兆之從橫也。凡卜之屬皆从卜。 卜，古文卜。 博木切(bū)。

釋文: 卜은 거북을 구워 쪼갠다는 뜻이다. 거북을 굽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一說에 거북점을 칠 때 上下左右로 龜裂된 모양을 象形한 것이라고도 한다. 卜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卜의 意味를 따른다. 卜은 卜의 古文이다.

甲骨文 ‘卜’은 거북의 등딱지를 불에 태워서, 그 破裂 痕跡을 象形한 것이다.

³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34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452

대체로 ‘占을 친다’는 뜻으로 使用하였다. 《說文解字》의 火部에서 “灼은 굽는다는 뜻이다.³⁶”라고 하였고, 刀部에서는 “剝은 쪼갬다는 뜻이다.³⁷”라고 하였다. 卜의 發音은 ‘博’과 ‘木’의 반절이다.

[數字와 關聯된 글자]

數字와 關聯된 글자에는 一(一), 五(五), 十(十)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 (一)³⁸

甲: 卜辭由一至四，字形作一，二，三，四以積畫為數，當出於古之算籌。甲文金文均同。

解字: 卜辭에서 一부터 四까지의 字形은 쌓여 있는 劃으로써 數字를 나타낸 一, 二, 三, 四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古代에 數筭을 셈하는 데에 쓰던 산가지다. 甲骨文과 金文 모두 모양이 같다.

說: 一 惟初太始，道立於一，造分天地，化成萬物。凡一之屬皆从一。 弌，古文一。 於悉切(yī)。

譯文: 一은 最初의 太極이다. 道는 一에서 세워졌으며, 後에 天地로 나뉘고 進化하여 萬事萬物로 이루어졌다. 一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一의 意味를 따른다. 弌은 一의 古文이다.

甲骨文 ‘一’은 古代人들이 숫자를 헤아릴 때, 使用하던 막대기의 形象이다.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모양은 같다. ‘一’은 六書에서 指事에 該當된다. 그리

³⁶ 《說文解字》火部 ‘灼’字의 解說을 참조

³⁷ 《說文解字》刀部 ‘剝’字의 解說을 참조

³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

고 ‘弌’, ‘弌’, ‘弌’은 古文이면서, 동시에 異體字다. 이러한 漢字들은 ‘古文奇字’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一의 發音은 ‘於’와 ‘悉’의 반절이다.

五 (ㄨ)

甲: 甲骨文子午之午作 ㄨ, 本以束絲之交午形, 會意為悟, 借為地支之午. 故甲骨文借用為數詞五, 或悟逆之悟.

解字: 甲骨文中에서 子午의 午는 ㄨ로 되어 있다. 本來는 가로세로로 엇갈리게 실을 묶은 모양으로 意味는 悟다. 假借되어 地支의 午로 되었다. 그리고 甲骨文中에서 假借하여, 數詞의 五 혹은 悟逆의 悟로 使用하였다.

說: ㄨ 五行也. 从二, 陰陽在天地間交午也. 凡五之屬皆从五. ㄨ, 古文五省. 疑古切(wǔ).

譯文: 五는 水·火·木·金·土의 五行을 뜻한다. 天地를 나타내는 二를 따르며, ㄨ은 陰陽이 天地 사이에서 交錯하는 것을 나타낸다. 五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五의 意味를 따른다. ㄨ는 五의 古文이며, 五의 聲략형이다.

甲骨文 ‘五’는 실패가 交叉된 모양이라고 하지만, 確實하지는 않다. ‘ㄨ’을 처음에는 ‘ㄨ’으로 쓰다가, 점차 위아래를 막은 ‘ㄨ’로도 썼다. 卜辭의 末尾에 있는 數字는 占친 回數를 말하는 것으로 ‘兆序’라고 한다.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모양은 같다. 그리고 古文中에서는 五字와 七字의 字形이 서로 비슷하다. 五의 發音은 ‘疑’와 ‘古’의 반절이다.

十 (丨)

甲: 丨為古代之算籌, 豎置一籌表示數量十, 以與橫置之算籌一區別.

³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2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10

⁴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21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313

解字: | 은 古代 셈하는 데에 쓰던 산가지다. 세로로 둔 산가지 하나가 數量 십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로로 둔 산가지 一과 區別 된다.

說: 十 數之具也。一為東西, | 為南北, 則四方中央備矣。凡十之屬皆从十。是執切(shí)。

譯文: 十은 數字가 完備된 것이다. 一은 東西를 나타내고, | 은 南北을 나타낸다. 즉, 東西南北과 中央이 모두 完備된 것이다. 十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十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十’은 數字 십을 나타낸다. 數字 일은 가로선 ‘一’로 나타냈고, 數字 십은 垂直線 ‘|’로 나타내어 서로 混同을 피했다. 《說文解字》 ‘十’도 數字 십을 나타내는데, 數字 칠의 ‘十’과 混同하기 쉽다. 그러므로 文脈에 의해 區分하여야 한다. 十의 發音은 ‘是’와 ‘執’의 반절이다.

지금까지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중에서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와 《說文解字》 部首字의 解說이 같은 글자를 比較하였다.

예를 들면, 甲骨文字典에서 𠂇(象)은 ‘코끼리의 形象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서는 象(象)은 ‘긴 코와 어금니를 가진 南越 地方의 큰 짐승이다.’라고 하였다. 甲骨文的 ‘𠂇’과 《說文解字》의 ‘象’은 字形과 意味가 서로 비슷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甲骨文字典에서 𠂇(鳥)은 ‘새의 形象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서는 鳥(鳥)은 ‘긴 꼬리를 가진 鷓鴣의 總稱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자 역시 字形과 意味가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

字綴이란 造字 過程에서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키는 것으로, 事物 간의 關係를 나타내는 意味를 假想的으로 表示하는 하나의 符號다. 字綴이 붙어 있는지의 與否에 따라 嚴格한 意味上的 區分이 된다.

예를 들면, 日(日)에서 ‘一’은 하나의 字綴이 된다. ‘一’은 가로획으로서 假想的인 表示일 뿐이다. 그러나 白(白)에서의 ‘一’은 字綴이 아니라, 하나의 字素가 된다. 따라서 假想的으로 表示한 것인가 아니면, 明確하게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字綴 또는 字素를 區分하는 重要한 基準이 된다.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를 人, 事物, 自然, 植物, 其他와 關聯된 글자로 分類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과 關聯된 글자]

사람과 關聯된 글자에는 立(立), 長(長), 老(老), 亦(亦), 疒(疒), 夫(夫)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立 (立)⁴¹

甲: 從大(大)從一, 象人正面站立之形, 一表所立之地。

解字: 大와 一을 따르며, 사람이 正面으로 서 있는 形象이다. 一은 서 있는 땅을 나타낸다.

說: 立 住也。从大立一之上。凡立之屬皆从立。力入切(lì)。

譯文: 立은 똑바로 서다는 뜻이다. 一의 위에 서 있는 大를 따른다. 立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立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立(立)은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땅 위에 서 있는 形象이라 할 수 있다. 本義는 ‘바르게 서다’이며, 아래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⁴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17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431

長 (𠂔)⁴²

甲: 象人長发之形, 引申而為凡長之稱。

解字: 사람이 길게 기른 머리털의 形象이며, 引申되어 普通 긴 것을 일컫는다.

說: 𠂔 久遠也。从兀, 从匕。兀者, 高遠意也。久則變化。亾聲。亾者, 倒亾也。凡長之屬皆从長。𠂔, 古文長。𠂔, 亦古文長。直良切(cháng)。

譯文: 長은 길고 오래다는 뜻이다. 兀과 匕를 따른다. 兀은 높고 멀다는 뜻이다. 長久는 곧 變化를 나타낸다. 亾聲이다. 亾은 亾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長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長의 意味를 따른다. 𠂔은 長의 古文이다. 𠂔도 長의 古文이다.

甲骨文 𠂔(長)은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춤을 추는 形象으로 추측된다. 甲骨文字典에서는 神名, 地名, 人名으로 쓰였으며, 가운데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老 (耂)⁴³

甲: 象老者倚杖之形, 為老之初文。

解字: 늙은이가 지팡이에 依支하고 있는 形象이며, 老의 初文이다.

說: 耂 考也。七十曰老。从人毛匕, 言須髮變白也。凡老之屬皆从老。盧皓切(lǎo)。

譯文: 老는 老人이다. 70歲를 老라고 한다. 人, 毛, 匕를 따른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 것을 말한다. 老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老의 意味를 따른다.

⁴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04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292

⁴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94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150

甲骨文 耂(老)는 머리카락이 길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 서 있는 形象으로, ‘老人’의 意味로 引申된 것으로 추측되며, 가운데의 ‘丨’은 字綴이다.

亦 (𠂇)⁴⁴

甲: 從𠂇(大)從八, 八為指事符號, 示人之兩腋之所在。八或省作ノ, \ 同。

解字: 𠂇와 八을 따르며, 八은 指事 符號로 사람의 두 겨드랑이가 있는 곳을 나타낸다. 八은 간혹 省略하여 / 또는 \ 로도 하였는데 같은 글자다.

說: 亦 人之臂亦也。从大, 象兩亦之形。凡亦之屬皆从亦。羊益切(yì)。

譯文: 亦是 사람의 겨드랑이다. 大를 따르며, 八은 팔 아래 두 겨드랑이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亦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亦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𠂇(亦)은 사람의 양쪽 겨드랑이에 점이 두 개 찍힌 形象으로, 겨드랑이의 所在를 나타낸 指事字다. 後에는 ‘腋’을 겨드랑이의 意味로 使用하였으며, 양옆에 있는 ‘八’은 字綴이다.

疒 (疒)⁴⁵

甲: 從亼(人)從疒, 疒象狀形, 亼之旁或有數點, 象人有疾病, 倚箸於狀而有汗滴之形。

解字: 亼과 疒을 따른다. 疒은 平牀 모양이고, 亼의 옆에 간혹 여러 점이 있는 것은 사람이 疾病이 있어, 寢牀에 依支하면서 땀방울이 맺힌 形象이다.

⁴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16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412

⁴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83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015

說: 疒 倚也。人有疾病，象倚箸之形。凡疒之屬皆从疒。女庾切(nè)。

譯文: 疒은 의지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疾病이 있어서, 기대어 依支하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疒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疒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疒(疒)의 字形에 대한 解說로, 孫詒讓은 《契文舉例》에서 甲骨文 “疒”을 “疥”으로, 葉玉森은 “瘳”로, 胡光炜은 “疴”로, 吳其昌은 “痛” 등으로 解釋하였는데, 모두 一致하지 않는다.⁴⁶ 그러나 共通點은 모두 疾病에 關聯되어 있다. 오른쪽에 있는 ‘丨’은 字綴이다.

夫 (夫) ⁴⁷

甲: 甲骨文大天夫一字。

解字: 甲骨文中에서 大, 天, 夫는 한 글자다.

說: 夫 丈夫也。从大，一以象簪也。周制以八寸為尺，十尺為丈。人長八尺，故曰丈夫。凡夫之屬皆从夫。甫無切(fū)。

譯文: 夫는 丈夫다. 大와 비녀 모양인 一을 따른다. 周代의 制度에서 8寸을 1尺으로, 10尺을 1丈으로 使用하였다. 成人의 身長이 8尺이므로, 丈夫라고 하였다. 夫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夫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夫(夫)는 男性의 머리에 裝飾物을 꽂아 成人이 되었음을 나타낸 形象이다. 위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事物과 關聯된 글자]

⁴⁶ 彭邦炯編著, 《甲骨文醫學資料釋文考辨與研究》, 人民衛生出版社, 2008, p.185

⁴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17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430

事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𣎵(豆), 𣎵(食), 𣎵(鹵), 𣎵(鬯), 𣎵(曰), 𣎵(豆), 𣎵(九), 𣎵(斤), 𣎵(力), 𣎵(率)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豆 (𣎵)⁴⁸

甲: 象盛食器之形。

解字: 飲食을 담는 그릇의 形象이다.

說: 𣎵 古食肉器也。从口，象形。凡豆之屬皆从豆。𣎵, 古文字。徒候切(dòu)。

譯文: 豆는 古代에 고기를 담아 쓰던 그릇이다. 口를 따르며, 象形이다. 豆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豆의 意味를 따른다. 𣎵은 豆의 古文이다.

甲骨文 𣎵(豆)의 위에 있는 ‘口’은 그릇이고, 그 안의 ‘一’은 飲食物이며, 아래의 ‘△’은 받침대로 추측된다. 가운데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食 (𣎵)⁴⁹

甲: 象簋上有蓋之形，乃日用饗飧之具，以盛食物，故引申為凡食之稱。

解字: 귀가 달린 祭器 위에 뚜껑이 있는 形象이다. 飲食物을 담는 것으로서 每日 食器로 使用하였기 때문에, 引申되어 대체로 食이라 일컬었다.

說: 𣎵 一米也。从皀，亼聲。或說：亼皀也。凡食之屬皆从食。乘力切(shí)。

譯文: 食은 한데 모은 쌀이다. 皀을 따르며, 亼聲이다. 或說에

⁴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51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63

⁴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56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90

食은 스과 飠을 따르는 會意字라고 한다. 食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食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𩺰(食)은 뚜껑이 있는 食器 모양으로, 양옆에 있는 点은 飲食物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양옆에 있는 ‘丩’은 字綴이다.

鹵 (𩺰)⁵⁰

甲: 象盛鹽於容器之形。𩺰為容器，其中之丩為鹽粒。金文字作𩺰，與甲骨文同。

解字: 容器에 소금을 담은 形象이다. 𩺰은 容器고, 그 가운데의 丩은 소금 알갱이다. 金文 鹵字는 𩺰로 되어 있는데, 甲骨文과 모양이 같다.

說: 鹵 西方鹹地也。从西省，象鹽形。安定有鹵縣。東方謂之庌，西方謂之鹵。凡鹵之屬皆从鹵。 郎古切(lǔ)。

譯文: 鹵는 서쪽 地方의 소금이 나는 땅이다. 籀文 鹵에서 父를 생략한 것을 따르며, 是은 소금의 모양이다. 安定郡에 鹵縣이 있다. 鹽地를 동쪽 地方에서는 庌이라 불렀고, 서쪽 地方에서는 鹵라고 불렀다. 鹵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鹵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𩺰(鹵)의 字形을 보면, 𩺰은 소금을 담은 그릇 또는 자루 모양이고, 가운데에 있는 ‘丩’은 소금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가운데의 ‘丩’은 字綴이다.

鬯 (鬯)⁵¹

甲: 象盛鬯酒容器之形。𩺰象器身，下從U乃器足。

解字: 鬯酒를 담은 容器 모양이다. 𩺰은 容器의 몸체고, 아래에

⁵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127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1660

⁵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562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687

달려 있는 U은 곧 容器의 굽이다.

說: 鬯 以秬釀 艸，芬芳(攸服)[條暢]，以降神也。从凵，凵，器也；中象米；匕，所以扱之。《易》曰：“不喪匕鬯。”凡鬯之屬皆从鬯。丑諒切(chàng)。

譯文: 鬯은 黑黍酒와 鬱金香草를 함께 빚어, 香氣를 퍼뜨려서 祭祀의 降神에 使用한다. 凵을 따르며, 凵은 밥그릇이다. 가운데의 U은 쌀의 모양이고, 匕는 밥숟가락이다. 《易經》에 “숟가락에 있는 鬱鬯酒는 잃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鬯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鬯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𠂔(鬯)은 술을 빚어서 담는 容器로, 술이 가득 차 있는 모양이며, 가운데에 있는 ‘凵’은 字綴이다.

曰 (曰)⁵²

甲: 象木鐸倒置之形，𠂔為鐸身，一為鐸舌。木鐸倒置，表示振鐸者將語以告人。

解字: 木鐸이 거꾸로 된 形象이다. 𠂔은 木鐸의 몸체이고, 一은 木鐸의 추다. 木鐸이 거꾸로 놓인 것은 木鐸을 울리는 사람이 大部分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말을 꺼내는 것을 나타낸다.

說: 曰 詞也。从口，乙聲，亦象口气出也。凡曰之屬皆从曰。王伐切(yuè)。

譯文: 曰은 語助詞이다. 口를 따르고, 乙聲이다. 입에서 氣가 나오는 것을 象形하였다. 曰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曰의 意味를 따른다.

⁵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49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50

甲骨文 𠄎(𠄎)은 사람이 입을 벌리고 말하는 모양으로, 甲骨文에서는 ‘말하다’ 또는 人名으로 쓰였다. 위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𠄎 (𠄎)⁵³

甲: 象鼓形。上象崇牙，中象鼓身，下象建鼓之虛。為鐘鼓之鼓本字。

解字: 북의 形象이다. 위는 樂器의 裝飾 모양이고, 가운데는 북의 몸체 모양이며, 아래는 建鼓의 틀 기둥의 모양이다. 鐘鼓의 鼓가 本字다.

說: 𠄎 陳樂, 立而上見也。从中, 从豆。凡𠄎之屬皆从𠄎。中句切(zhù)。

譯文: 𠄎는 樂器를 陣列해 세우면, 그 위의 裝飾品이 보인다는 뜻이다. 巾과 豆를 따른다. 𠄎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𠄎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𠄎(𠄎)의 위는 북을 裝飾한 것이며, 가운데는 북의 몸체고, 아래는 북을 받치고 있는 틀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九 (九)⁵⁴

甲: 象曲鉤之形。鉤字古作句。內公鐘句作 𠄎 形，羅振玉云其狀正為圓環，下有物如蛇狀，尾上曲為鉤。句九古音同，故句得借為九，復於句形上加指示符號而作 𠄎, 𠄎。

解字: 굽은 갈고리의 形象이다. 鉤字는 古代 句로 하였다. 公鐘 안의 句는 𠄎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羅振玉은 그것은 바로 둥근 쇠고리 모양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뱀처럼 생긴 모양으로 꼬리가 위로 굽은 것이 갈고리라고 하였다. 句와 九는 古代 音이 같았기

⁵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514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59

⁵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3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12

때문에 句는 得借하여 九로 되었고, 다시 句의 모양 위에 指示符號을 더하여 𠄎, 𠄏로 하였다.

說: 九 陽之變也。象其屈曲究盡之形。凡九之屬皆从九。舉有切(jiǔ)。
譯文: 九는 陽의 變數다. 끝까지 구부러지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九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九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𠄎(九)는 갈고리 혹은 도마뱀 등으로 解釋이 多樣하다. 後에 假借되어 ‘아홉’으로 되었다. 위에 있는 ‘丿’은 字綴이다.

斤 (𠄎)⁵⁵

甲: 象曲柄斧形。

解字: 자루가 휘 도끼의 形象이다.

說: 斤 斫木[斧]也。象形。凡斤之屬皆从斤。舉欣切(jīn)。

譯文: 斤은 나무를 쪼개는 도끼다. 象形이다. 斤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斤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𠄎(斤)은 도끼날 모양으로, ‘丿’은 굽어진 도끼 자루의 모양으로 여겨지며, 위에 있는 ‘㇇’은 字綴이다.

力 (𠄎)⁵⁶

甲: 象原始農具之耒形。殆以耒耕作須有力，故引申為氣力之力。

解字: 原始 農器具인 쟁기의 形象이다. 大概 쟁기로 農事를 지었는데 만드시 힘이 必要했기 때문에, 引申되어 氣力の 力이 되었다.

⁵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49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050

⁵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47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993

說: 𠂔 筋也。象人筋之形。治功曰力，能圍大災。凡力之屬皆从力。林直切(11)。

譯文: 力은 筋肉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筋肉이 여기저기 튀어나온 모양을 象形하였다. 또한 天下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力이라 한다. 力은 능히 큰 災難을 막을 수 있다. 力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力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𠂔(力)의 위는 쟁기의 손잡이 모양이고, 아래는 땅을 뒤집는 쟁기 날 모양으로 古代 農事짓는 農器具다. 아랫부분에 있는 ‘丿’은 字綴이다.

率 (𠂔)⁵⁷

甲: 象絞麻為索之形，旁點為麻象之餘。引申之率遂有循也遵也帥也等義。

解字: 삼으로 꼬아 만든 동아줄의 形象이다. 옆의 點은 삼의 餘分이다. 率은 原來 큰 동아줄인데, 引伸된 率은 마침내 돌아다니다, 따르다, 거느리다 등의 意味를 가진다.

說: 率 捕鳥畢也。象絲罔，上下其竿柄也。凡率之屬皆从率。所律切(shuài)。

譯文: 率은 새 잡는 그물이다. 실로 짠 그물을 본뜬 것이며, 그 위와 아래는 그물의 장대와 자루다. 率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率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𠂔(率)의 가운데 ‘𠂔’은 삼으로 꼬아 놓은 동아줄의 모양이고, 양옆에 있는 ‘丩’은 동아줄에 남아 있는 餘分이다. 양옆에 있는 ‘丩’은 字綴이다.

⁵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42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894

[自然과 關聯된 글자]

自然과 關聯된 글자에는 日(日), 月(月), 水(水), 雨(雨), 乞(乞), 丘(丘), 土(土), 丹(丹)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日 (日)⁵⁸

甲: 象日之形。日為圓形，甲骨文日字因契刻不便作圓，故多作方形，其中間一點用以與方形或圓形符號相區別。

解字: 太陽의 形象이다. 太陽은 둥근 모양인데, 甲骨文의 日字는 둥글게 새기기 不便하기 때문에 大部分 네모 모양으로 하였다. 그 가운데 一 點은 方形 혹은 圓形의 符號와 서로 區別하여 使用하였다.

說: 日 實也。太陽之精不虧。从口一。象形。凡日之屬皆从日。日，古文。象形。人質切(ri)。

譯文: 日은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太陽의 정수는 어그러지지 않는다. □과 一을 따른다. 象形이다. 日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日의 意味를 따른다. 日은 日의 古文으로 象形이다.

甲骨文 日(日)의 ‘□’은 太陽의 모양이고, 가운데 ‘一’은 太陽 빛을 象形한 것이다. 太陽은 本來 둥근 모양인데, 古代人들이 새기기 不便하여 네모 모양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운데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月 (月)⁵⁹

甲: 象半月之形。月虧闕之時較多，故取象半月以別於日。

⁵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1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01

⁵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4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28

解字: 반달의 形象이다. 달이 이지러질 때가 比較的 많으므로, 半月의 모양을 취함으로써 日과 區別하였다.

說: 𠄎 闕也。太陰之精。象形。凡月之屬皆从月。魚厥切(yuè)。

譯文: 月은 이지러지다는 뜻이다. 太陰의 빛이다. 象形이다. 月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月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𠄎(月)의 ‘D’은 반달 모양이고, 가운데 ‘丨’은 달빛을 象形한 것이다. 가운데에 있는 ‘丨’은 字綴이다.

水 (氵)⁶⁰

甲: 甲骨文水字繁省不一, 作 氵者與《說文》篆文同。 氵象水流之形, 其旁之點象水滴, 故其本義為水流, 引伸為凡水之稱。

解字: 甲骨文 水字는 多樣해서 같지 않는데, 氵은 《說文解字》篆文과 모양이 같다. 氵은 물이 흐르는 形象이며, 그 옆의 點은 물방울의 모양이다. 그러므로 그 本義는 물이 흐르다는 뜻이다. 引申되어 보통 물이라 稱한다.

說: 氵 準也。北方之行。象衆水並流, 中有微陽之氣也。凡水之屬皆从水。 式軌切(shuǐ)。

譯文: 水는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北方의 行이다. 많은 물이 나란히 흐르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가운데는 미미한 陽氣가 있다. 水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水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氵(水)의 가운데는 물이 흐르는 모양이고, 양옆의 ‘丨’은 물이 흐르면서 물방울이 되는 形象이다. 甲骨文 ‘水’의 字形은 多樣하며, 양옆에 있는 ‘丨’은 字綴이다.

⁶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18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485

雨 (𩇛)⁶¹

甲: 象雨點自天而降之形，一表天。

解字: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고 있는 形象이다. 一은 하늘을 나타낸다.

說: 雨 水从雲下也。一象天，冂象雲，水霤其間也。凡雨之屬皆从雨。 𩇛, 古文。王矩切(yǔ)。

譯文: 雨는 물이 구름에서 떨어지다는 뜻이다. 一은 하늘을 象形하였고 冂은 구름을 象形하였는데, 물이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雨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雨의 意味를 따른다. 𩇛은 雨의 古文이다.

甲骨文 𩇛(雨)는 빗방울이 잇대어 떨어지는 모양으로, 本義는 ‘비’ 또는 ‘비가 오다’로 쓰인다. 아래에 있는 ‘𩇛’은 字綴이다.

乞 (乞)⁶²

甲: 象河床涸竭之形，二象河之兩岸，加一於其中表示水流已盡。即乞之本字。

解字: 河川 바닥에 물이 말라서 없어진 形象이다. 二은 河川의 양쪽 언덕 모양이고, 그 가운데에 있는 一은 물의 흐름이 이미 다한 것을 나타낸다. 즉 乞의 本字다.

說: 乞 雲气也。象形。凡气之屬皆从气。去既切(qì)。

譯文: 乞는 구름의 氣運을 뜻한다. 象形이다. 气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气의 意味를 따른다.

⁶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124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1615

⁶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3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58

甲骨文 三(乞)은 氣流가 流動하는 모양 또는 河川의 물이 말라 있는 形象이다. 가운데 劃을 짧게 한 것은, 숫자 ‘三’의 字形과 混同을 막기 위한 것이며, 가운데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丘 (凵)⁶³

甲: 象穴居兩側高出地面之出入孔之形。商人多穴居，甲骨文丘則以其地面形制表示其特點。


解字: 동굴 양 옆으로 높게 突出된 地面과 드나드는 구멍의 形象이다. 商나라 사람들은 大多數 동굴에서 살았으므로, 甲骨文의 丘는 곧 地面의 모양과 構造로써 그 特徵을 나타냈다.

說: 凵 土之高也，非人所為也。从北，从一。一，地也，人居在丘南，故从北。中邦之居，在崑崙東南。一曰：四方高，中央下為丘。象形，凡丘之屬皆从丘。凵，古文从土。去鳩切(qiū)。

譯文: 丘는 높은 흙무더기인데, 人力으로 쌓은 것이 아니다. 北과 一을 따른다. 一은 땅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언덕의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北을 따른다. 中國의 集團 居住地는 崑崙山 東南에 있었다. 一說에 四方이 높고, 中央이 낮으면 丘라 불렀다고 한다. 象形이며, 丘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丘의 意味를 따른다. 凵은 丘의 古文이며 土를 따른다.

甲骨文 凵(丘)는 작은 山 혹은 穴居의 地上 出入口 모양으로 여겨지며, 아래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土 (凵)⁶⁴

甲: 象土塊在地面之形。凵為土塊，一，地也。本應填實作, 因契刻不

⁶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924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120

⁶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45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950

便肥筆，故為匡廓作Ω，後漸簡為Δ，⊥。

解字: 地面에 있는 흙덩이의 形象이다. Ω은 흙덩이고, 一은 땅이다. 本來 바탕을 채워 ⊥로 하였는데, 새기기 不便하기 때문에 테두리를 두텁게 써서 Ω 모양으로 하였다. 後에 점차 簡略하게 Δ, ⊥으로 되었다.

說: 土 地之吐生物者也。二象地之下、地之中，物出形也。凡土之屬皆从土。 它魯切(tǔ)。

譯文: 土는 萬物을 吐해 내는 땅이다. 二는 땅의 아랫면과 땅 속의 모양을 象形한 것이고, 一은 萬物이 땅 속으로부터 자라 나오는 모양이다. 土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土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Ω(土)는 땅 위로 우뚝 솟아 있는 흙더미 모양이다. ‘땅’ 또는 ‘土神’의 意味로 引申되었다. 아래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丹 (𠂔)⁶⁵

甲: 從丹中有點，與《說文》篆文字形略同。

解字: 𠂔의 가운데에 點이 있는 것을 따른다. 《說文解字》篆文과 字形이 비슷하다.

說: 丹 巴越之赤石也。象采丹井，一象丹形。凡丹之屬皆从丹。𠂔，古文丹。 𠂔，亦古文丹。 都寒切(dān)。

譯文: 丹은 巴郡, 南越에서 生産되는 朱砂다. 朱砂를 採掘하는 우물의 모양이며, 一은 朱砂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丹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丹의 意味를 따른다. 𠂔은 丹의 古文이다. 𠂔도 丹의 古文이다.

⁶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554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683

甲骨文 𠂔(丹)의 ‘𠂔’은 우물의 모양이고, 가운데 ‘一’은 採掘한 朱砂를 象形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운데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植物과 關聯된 글자]

植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才(才), 米(米), 生(生)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才 (才)⁶⁶

甲: 甲骨文才之 𠂔, 𠂔示地平面以下, | 實穿其中, 示艸木初生從地平面以下冒出。卜辭皆用為「在」而不用其本義。

解字: 甲骨文 才의 𠂔, 𠂔은 地平面 아래를 나타내며, |은 그 가운데를 꿰뚫은 모양으로, 草木이 처음 생겨나 地平面 아래로부터 힘들게 나오는 것을 나타낸다. 卜辭에서는 그 本義를 使用하지 않고 모두 ‘在’로 使用하였다.

說: 才 艸木之初也。从丨上貫一, 將生枝葉; 一, 地也。凡才之屬皆从才。昨哉切(cái)。

譯文: 才는 草木이 처음 생겨난 것이다. |이 一을 뚫고 위로 向하는 것을 따르며, 싹이 發芽하여 將次 가지와 잎이 생기는 것을 나타낸다. 一은 地面이다. 才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才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才(才)는 草木이 막 가까스로 돌아나는 모양이다. 音에 의해 假借되어 前置詞인 在로 쓰였으며, 위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⁶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672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826

米 (𥝌)⁶⁷

甲: 上下小點象米粒形, 中增一橫劃蓋以與沙粒, 水點相別。

解字: 위아래의 작은 점들은 쌀알의 形象이다. 가운데 ‘一’劃을 더한 것은 덮개로서 모래알, 물방울과 서로 區別된다.

說: 𥝌 粟實也。象禾實之形。凡米之屬皆从米。莫禮切(mi)。

譯文: 米는 穀食의 種子라는 뜻이다. 벼 種子의 모양을 形象하였다. 米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米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𥝌(米)의 ‘𥝌’은 쌀알의 形象이다. ‘𥝌’의 가운데 ‘一’劃을 넣으면, 農器具에 붙은 흙 알갱이 또는 날씨와 關聯된 글자의 물방울의 모양과 區別된다. 위아래에 있는 ‘𥝌’은 字綴이다.

生 (𠂔)⁶⁸

甲: 從卩從一, 一即地, 象艸木生出地上之形。

解字: 卩과 一을 따르며, 一은 곧 땅이다. 草木이 땅 위로 자라 나오는 形象이다.

說: 𠂔 進也。象艸木生出土上。凡生之屬皆从生。所庚切(shēng)。

譯文: 生은 成長해 나아가다는 뜻이다. 草木이 흙 위로 나오는 形象이다. 生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生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𠂔(生)은 草木이 땅을 뚫고 돌아나는 形象이다. 아래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⁶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792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971

⁶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68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833

[其他 글자]

其他 글자에는 上(上), 甘(甘), 東(東), 西(西), 亡(亡)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上 (上)⁶⁹

甲: 上與下本為相對而成之概念, 《易·上經》釋文: 「上對下立名」, 故用一符置於一條較長橫畫之上下。

解字: 上과 下는 本來 相對的 概念이다. 《易·上經》의 釋文에 “上對下立名”이라 하였다. 그래서 一 符號를 한 줄기에 놓고 긴 가로획을 比較하여 上과 下로 使用하였다.

說: 上 高也。此古文上。指事也。凡上之屬皆从上。𠂔, 篆文上。時掌切 (shàng)。

譯文: 上은 높다는 뜻이다. 이것은 上의 古文이다. 指事이다. 上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上의 意味를 따른다. 𠂔은 上의 篆文이다.

甲骨文 上(上)의 아랫부분에 길게 위로 흰 획은 하나의 基準線을 나타내고, 위의 짧은 ‘一’획은 空間의 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引申되어 ‘天上’을 가리킨다. 위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甘 (甘)⁷⁰

甲: 從一在口(口)中, 象口中含物之形, 與《說文》篆文同。

解字: 甘 가운데의 一은 口 안에 飲食物을 머금은 形象이다. 《說文解字》篆文과 모양이 같다.

⁶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3

⁷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49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49

說: 甘 美也。从口含一；一，道也。凡甘之屬皆从甘。古三切(gān)。

譯文: 甘은 맛이 좋다는 뜻이다. 口에 一을 머금은 것을 따른다. 一은 味道를 나타낸다. 甘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甘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𠔁(甘)의 ‘𠔁’은 입 모양이고, 가운데의 ‘一’은 입 안에 있는 飲食物로 여겨지며, 가운데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束 (𠔁)⁷¹

甲: 甲骨文 𠔁 字正象以繩束木之形。或又從 𠔁(又), 𠔁(収), 示以手縛木之義。

解字: 甲骨文 𠔁 字의 가운데는 노끈으로 나무를 묶은 形象이다. 또한 간혹 𠔁, 𠔁을 따른 것은 손으로 나무를 묶는다는 意味를 나타낸다.

說: 束 縛也。从口木。凡束之屬皆从束。書玉切(shù)。

譯文: 束은 묶는다는 뜻이다. 口과 木을 따른다. 束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束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𠔁(束)의 ‘𠔁’은 나무의 모양이고, 가운데의 ‘口’은 나무를 묶은 形象으로 여겨지며, ‘口’은 字綴이다.

西 (西)⁷²

甲: 西 象鳥巢形，王國維釋西。甲骨文西字或體作 西，西，此亦象鳥巢形，辭例亦與西合。

解字: 西은 새 둥지의 形象으로 王國維는 西로 解釋하였다. 甲骨

⁷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692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840

⁷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276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659

文 西의 或字는 𠂔, 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새 둥지의 모양으로 辭例 또한 𠂔와 一致한다.

說: 𠂔 鳥在巢上。象形。日在西方而鳥棲，故因以為東西之西。凡西之屬皆从西。𠂔，西或从木妻。 𠂕，古文西。 𠂖，籀文西。先稽切(xī)。

譯文: 西는 새가 둥지에 위에 있다는 뜻이다. 象形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새가 둥지에 깃든다. 그래서 東西의 西가 되었다. 西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西의 意味를 따른다. 𠂔은 西의 或字로서 木과 妻를 따른다. 𠂕은 西의 古文이다. 𠂖은 西의 籀文이다.

甲骨文 𠂕(西)는 새 둥지의 모양으로, 𠂔, 𠂕, 𠂕 등 多樣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대나무 바구니로 보는 解釋도 있다. 音에 의해 方位를 나타내는 ‘서쪽’의 意味로 빌려 썼다. 가운데에 있는 ‘x’은 字綴이다.

亡 (亾)⁷³

甲: 字形所象不明，其初義不可知。金文作 𠂗, 𠂘與甲骨文形同。

解字: 字形이 確實하지 않으며, 그 처음 意味는 알 수 없다. 金文의 𠂗과 𠂘은 甲骨文과 모양이 같다.

說: 𠂗 逃也。从入，从 一。凡亡之屬皆从亡。武方切(wáng)。

譯文: 亡은 도망가다는 뜻이다. 入과 一을 따른다. 亡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亡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𠂗(亡)의 字形의 背景은 알 수 없으나, ‘亡’을 [없을 無]의 意味로 썼다. 왼쪽에 있는 ‘1’은 字綴이다.

⁷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386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812

지금까지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중에서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와 《說文解字》部首字의 解說이 같은 글자를 比較하였다.

예를 들면, 甲骨文字典에서 𩇛(雨)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고 있는 形象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서는 雨(雨)는 ‘물이 구름에서 떨어지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甲骨文의 ‘𩇛’와 《說文解字》의 ‘雨’는 字形과 意味가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甲骨文 ‘𩇛’의 字形에서 아래의 세 개의 작은 點은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키는 字綴이다.



2) 準字素

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準字素」는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單獨으로 甲骨文字를 만들 수가 없고, 다른 字素에 依存하여 結合되어야만 甲骨文 複素字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글자를 構成하는 要素다.

예를 들면, 𣦵(葬)은 ‘安葬하다’, ‘埋葬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甲骨文 𣦵의 ‘艹’은 埋葬하려고 파 놓은 窟 모양으로 보이며, ‘冫’은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艹’은 單獨으로는 造字 機能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艹’이 ‘冫’에 依存하여 結合되면 또 다른 形과 音·義를 構成할 수 있다.

「準字素」를 사람, 動物, 自然과 關聯된 글자로 分類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과 關聯된 글자]

사람과 關聯된 글자에는 𣦵(死), ㊦(包), 疒(疔)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死 (𣦵)⁷⁴

甲: 從 冫(人)從 𣦵(步)。象人拜於朽骨之旁以會死義。

解字: 冫과 𣦵을 따른다. 죽음의 意味로서 사람이 썩은 뼈 옆에서 절을 하는 모양이다.

說: 𣦵 漸也, 人所離也。从步, 从人。凡死之屬皆从死。𣦵, 古文死如此。息姊切(sì)。

譯文: 死는 精氣가 다하여, 사람들의 肉體와 魂魄이 서로 分離된 것을 말한다. 步과 人을 따른다. 死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死의 意味를 따른다. 𣦵은 死의 古文이다.

甲骨文 𣦵(死)는 나무관 속에 사람이 누워 있는 形象으로, ‘죽음’을 나타낸 것

⁷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46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558

으로 여겨진다. ‘㇇’이 準字素로서, 結合되어 構成된 글자다.

包 (㇇)⁷⁵

甲: 包, ㇇初為一字。從㇇中有㇇(人), 與《說文》㇇字篆文略同。甲骨文象人之胞胎形, 當為包之初文。甲骨文以㇇或㇇象人腹中之子, 例如小篆作㇇(己)。

解字: 包와 ㇇은 始初 한 글자였다. ㇇ 가운데 ㇇이 있는 것을 따르며, 《說文解字》㇇字의 篆文과 비슷하다. 甲骨文은 사람이 胎兒를 가진 모양으로, 마땅히 包의 初文이다. 甲骨文에서 ㇇ 혹은 ㇇은 사람 뱃속의 아이 모양이며, 小篆은 ㇇로 되어 있다.

說: ㇇ 象人裹妊, 巳在中, 象子未成形也。元氣起於子。子, 人所生也。男左行三十, 女右行二十, 俱立於巳, 為夫婦。裹妊於巳, 巳為子, 十月而生。男起巳至寅, 女起巳至申。故男年始寅, 女年始申也。凡包之屬皆从包。布交切(bāo)。

譯文: 包는 사람이 아이를 뱃 모양이다. ㇇의 中間에 있는 巳는 胎兒가 아직 形態를 갖추지 못한 모양을 象形하였다. 元氣는 子에서 시작한다. 子는 사람들이 낳아 기르는 갓난아이다. 男子는 왼쪽으로 서른 번째 地支, 女子는 오른쪽으로 스무 번째 地支에 가서, 함께 巳에서 夫婦가 된다. 巳에서 懷妊하므로 巳는 子가 된다. 열 달 만에 태어난다. 男子는 巳에서 시작하여 寅에 이르고, 女子는 巳에서 시작하여 申에 이른다. 그래서 男子는 나이를 寅에서 시작하고, 女子는 나이를 申에서 시작한다. 包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包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包)는 사람이 胎兒를 가진 모양으로, 가운데의 ‘㇇’은 사람 뱃속의 아이 모양으로 여겨진다. ‘㇇’이 準字素로서, 結合되어 構成된 글자다.

⁷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02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243

疒 (𠄎) ⁷⁶

甲: 從亼(人)從卩, 卩象狀形, 亼之旁或有數點, 象人有疾病, 倚箸於狀而有汗滴之形。

解字: 亼과 卩을 따른다. 卩은 平牀 모양이고, 亼의 옆에 간혹 여러 점이 있는 것은 사람이 疾病이 있어, 寢牀에 依支하면서 땀방울이 맺힌 形象이다.

說: 疒 倚也。人有疾病, 象倚箸之形。凡疒之屬皆从疒。女宐切(nè)。

譯文: 疒은 의지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疾病이 있어서, 기대어 依支하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疒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疒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𠄎(疒)의 ‘卩’은 平牀 모양이고, ‘亼’의 周圍에 있는 여러 점은 사람이 疾病으로 寢牀에 누워서 땀을 흘리는 形象으로 여겨진다. ‘卩’이 準字素로서, 結合되어 構成된 글자다.

[動物/自然과 關聯된 글자]

動物/自然과 關聯된 글자에는 𠄎(廌), 出(出)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廌 (𠄎) ⁷⁷

甲: 字形與《說文》廌字篆文近似, 唐蘭釋廌。按唐說可從。甲骨文象頭部有二彎角之牛形, 當屬牛類。甲骨文牛字或作 𠄎 象牛之側面形, 與 𠄎 形近。

⁷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83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015

⁷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07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333

解字: 唐蘭은 麇의 字形은 《說文解字》麇字의 篆文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唐蘭의 解說을 따른다. 甲骨文은 머리 部分에 두 개의 굽은 뿔이 있는 소 모양이므로 소의 種類에 屬한다. 甲骨文의 牛字는 犛으로 되어 있는데 소의 側面 모양이다. 犛와 모양이 비슷하다.

說: 麇 解麇獸也, 似山牛, 一角。古者決訟, 令觸不直。象形, 从豸省。凡麇之屬皆从麇。宅買切(zhì)。

譯文: 麇는 獬豸라는 짐승이다. 들소와 비슷하고 뿔이 하나다. 옛날에는 訟事를 判決할 때, 正直하지 못한 사람은 이 짐승에게 받치게 하였다. 象形이며, 豸의 생략형을 따른다. 麇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麇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𠂔(麇)는 머리 部分에 두 개의 굽은 뿔이 있는 소의 形象으로 여겨진다. ‘𠂔’이 準字素로서, 結合되어 構成된 글자다.

出 (出)⁷⁸

甲: 從彳(止)從凵, 彳象足, 凵或作凵, 象古代穴居之洞穴。故甲骨文出字象人自穴居外出之形, 或更從彳, 𠂔(行), 則出行之義尤顯。

解字: 彳와 凵을 따른다. 彳은 발 모양이고, 凵은 간혹 凵으로도 하였다. 古代 사람이 居住하는 洞窟의 구멍 모양으로, 甲骨文 出字는 사람이 洞窟에서 外出하는 모양이다. 간혹 바뀌어 彳와 𠂔을 따르는 것은 곧 出行之 意味가 더욱 뚜렷해진다.

說: 出 進也。象艸木益滋, 上出達也。凡出之屬皆从出。尺律切(chū)。

譯文: 出은 成長해 나아가다는 뜻이다. 草木이 점차 자라서 위로 향하는 것을 象形하였다. 出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出의 意味를

⁷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68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830

따른다.

甲骨文 𡗗(出)은 古代 사람들이 居住하던 洞窟의 구멍으로 사람이 外出하는 모양으로 여겨진다. ‘卜’이 準字素로서, 結合되어 構成된 글자다.

지금까지 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準字素」와 《說文解字》部首字의 解說이 같은 글자를 比較하였다.

한가지 例를 들면, 甲骨文字典에서 ㊦(包)는 ‘사람이 胎兒를 가진 모양으로, 가운데의 ‘㇇’은 사람 뱃속의 아이 모양’이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서는 ㊦(包)는 ‘사람이 아이를 뱃속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甲骨文的 ‘㊦’와 《說文解字》의 ‘㊦’는 字形과 意味가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甲骨文 字形에서 ‘㇇’은 單獨으로는 造字 機能을 지니지 못하는 ‘準字素’로서, ‘㇇’와 結合하여 새로운 形·音·義를 가진 ‘㊦(包)’으로 된 것이다.

2.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다른 글자

李圃의 《甲骨文文字學》字素와 《說文解字》部首를 比較하여 解說이 같은 글자와 解說이 다른 글자로 分類하고, 다시 甲骨文 字素의 造字 機能에 따라, 解說이 같은 글자는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와 「準字素(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로 나누고, 解說이 다른 글자는 모두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로 나누었다. 이 두 種類의 字素는 모두 甲骨文字 造字의 基本成分이기 때문에 「基本字素」라고도 부를 수 있다.

1)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는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와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로 나뉘며, 甲骨文字를 單獨으로 構成하는 機能을 지니고 있고, 一定한 造字 方法에 따라 다른 字素와 함께 甲骨文字를 構成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甲骨文 𠂔(尸)은 ‘사람이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모양’이고, 甲骨文 𠂔(午)은 ‘실을 가로세로로 엇갈리게 묶은 形象’이다. 이 두 글자는 모두 單獨으로 또는 다른 字素와 함께 甲骨文字를 構成할 수 있는 字素들이다.

(1)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

字綴이란 造字 過程에서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키는 것으로, 事物 간의 關係를 나타내는 意味를 假想的으로 表示하는 하나의 符號다. 字綴이 붙어 있는지의 與否에 따라 嚴格한 意味上的 區分이 된다.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를 사람, 動物, 事物, 兵器, 祭祀, 其他와 關聯된 글자로 分類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과 關聯된 글자]

사람과 關聯된 글자에는 𠂔(尸), 𠂔(黃), 𠂔(董), 𠂔(匕), 𠂔(乃)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卩 (卩)⁷⁹

甲: 象人席地而坐之坐姿。段玉裁謂: 「古人之跪與坐皆窳著於席而跪聳其體, 坐下其肫。」跪為殷人祭祀時脆拜姿態, 坐為燕居間處姿態, 因皆為雙膝著於地之形。

解字: 사람이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모양이다. 段玉裁는 “古人들이 돛자리에 두 무릎을 꿇어 앉아서 윗사람을恭敬하는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 모양은殷나라 사람들이祭祀를 지낼 때 절을 하는 모습과 閑暇하게 한 곳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모두 두 무릎이 땅에 닿아 있는 모양을 말한다.

釋義: 祭祀를 지낼 때 禮式을 行하는 行動다.

卩于母丙 (卩于母丙)

韓譯: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꿇어 앉았다.

說: 卩 瑞信也。守國者用玉卩, 守都鄙者用角卩, 使山邦者用虎卩, 土邦者用人卩, 澤邦者用龍卩, 門關者用符卩, 貨賄用璽卩, 道路用旌卩。象相合之形。凡卩之屬皆从卩。子結切(jié)。

譯文: 卩은 信標이다. 邦國을 지키는 諸侯는 玉卩, 都鄙를 지키는 公경대부는 角卩, 산악지방의 경대부는 虎卩, 평야지대의 경대부는 人卩, 물이 많은 지방에서는 龍卩, 國境을 통관하는 者는 符卩, 돌아다니는 장사치는 璽卩, 國道를 使用하는 者는 旌卩을 使用한다. 서로 합쳐진 모양을 象形하였다. 卩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卩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卩’은 ‘사람이 무릎을 꿇어 앉는다.’는 뜻이다. 甲骨文字典에서는 字形에 依하여 解釋한 것이며, 《說文解字》에서는 哲學的으로 解釋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解說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⁷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99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233

黃 (𡗗)⁸⁰

甲: 象人佩環之形: 𡗗象正立之人形, 其中部之□, 日象玉環形。古代貴族有佩玉之習。《禮記》: 「行步則有佩環之聲。」此為佩玉有環之證。《說文》說形不確。

解字: 사람이 허리에 둥근 玉을 차고 있는 形象이다. 𡗗은 사람이 바로 서 있는 모양이며, 그 가운데의 □나 日은 옥고리 모양이다. 古代 貴族들은 佩玉을 지니는 風習이 있었다. 《禮記》에 “걸음을 걸을 때 佩玉 소리가 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고리가 있는 佩玉이라는 것을 뜻한다. 《說文解字》에서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黃尹과 黃奭은 殷의 옛 臣下의 이름이다.

𡗗 𡗗 𡗗 𡗗 𡗗 (貞令王佳黃)

韓譯: 묻습니다. 王이 貴族 黃에게 命畀한 것입니까?

說: 黃 地之色也。从田, 从𡗗, 𡗗亦聲。𡗗, 古文光。凡黃之屬皆从黃。𡗗, 古文黃。乎光切(huáng)。

譯文: 黃은 땅의 色이다. 田과 𡗗을 따르고, 𡗗이 發音을 나타낸다. 𡗗은 光의 古文이다. 黃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黃의 意味를 따른다. 𡗗는 黃의 古文이다.

甲骨文 ‘黃’은 ‘黃尹’ 혹은 ‘黃奭’의 이름으로 使用되었다. 또한 徐中舒는 ‘사람이 玉을 지니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後에 ‘黃色’, ‘人名’으로 빌려 썼다.

董 (𡗗)⁸¹

甲: 象兩臂交縛之人形, 為獻祭之人牲, 𡗗象焚 𡗗以祭之形。皆為燠之原字, 蓋甲骨文偏旁每可增省。𡗗本從山(火), 可隸定為, 後山漸譌為土, 小篆作董。《說文》說形不確。

⁸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47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990

⁸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46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981

解字: 사람의 두 팔을 엇갈리게 묶은 形象으로 祭物로 쓰이는 사람이다. 𠄎은 사람을 태우는 形象이고, 𠄎은 祭祀를 지내는 形象으로 모두 燬의 本字다. 대개 甲骨文의 偏旁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𠄎은 원래 火(火)를 따르는 字로서 隸書에서는 𠄎로 정해졌다. 後에 火가 점차 잘못 변하여 土로 되었다. 小篆에서는 𠄎으로 되어 있다. 《說文解字》는 正確하지 않다.

釋義: 乾燥이다.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用 𠄎羊 亡雨)

韓譯: 털빛이 누런 羊을 祭祀에 使用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리지 않습니까?

說: 𠄎 黏土也。从土，从黃省。凡 𠄎之屬皆从 𠄎。𠄎、𠄎，皆古 𠄎。巨斤切(qín)。

譯文: 𠄎은 黏土다. 土와 黃의 聲旁형을 따른다. 𠄎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𠄎의 意味를 따른다. 𠄎과 𠄎은 모두 𠄎의 古文이다.

陳蒙家는 甲骨文 ‘𠄎’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에 외치는 모양이며, 異體字로 밑에 火가 있는 𠄎字의 字形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𠄎字이며, 점차 火가 土로 변해 小篆의 𠄎이 되었다.’고 하였다. 艱, 饑, 難, 歎 등은 모두 𠄎에서 引伸되었다고 볼 수 있다.

匕 (匕)⁸²

甲: 象人鞠躬或匍伏之側形，郭沫若以為象匕匙之形。實非。其初形應作 匕，為適應豎行排列之故，遂作 匕。《說文》說形不確。

解字: 윗사람이나 靈威 앞에서 尊敬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히거나 혹은 엎드려 기어가는 形象이다. 郭沫若是 匙모양이라고 하였는데 事實은 그렇지 않다. 最初의 모양은 匕로 되어 있었으

⁸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91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115

나, 점차 ㄱ처럼 세워 쓰게 되었다. 《說文解字》는 正確하지 않다.
釋義: 妣로 읽으며, 卜辭에서는 先祖에게 배필을 맺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𠄎 𠄎于ㄱ(管)𠄎(𠄎)𠄎(𠄎)𠄎(𠄎)𠄎(𠄎)𠄎(𠄎)𠄎(𠄎) (作御牧于妣乙盧豕[𠄎]妣癸
𠄎妣丁豕妣乙豕[𠄎]豕[𠄎])

韓譯: 관리 牧을 위해 先妣들에게 御祭를 지내는데, 妣乙에게 돼지를, 妣癸에게 들 돼지를, 妣丁에게 돼지를, 妣乙에게 두 마리의 돼지를 드릴까요?

說: 匕 相與比叙也。从反人。匕，亦所以(用比)取飯，一名柶。凡匕之屬皆从匕。 卑履切(bī)。

譯文: 匕는 서로 나란히 順序를 짓다는 뜻이다. 人을 反對로 한 것을 따른다. 또한 匕는 比를 使用하여 밥을 취하는 것이기에 一名 柶라고도 한다. 匕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匕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匕’는 즉 妣이며, 돌아가신 어머니 또는 수저의 모양이다. 그러나 趙誠은 ‘出土된 遺物과 比較해 볼 때, 수저 모양이 아니고, 사람이 팔을 구부리고 있는 側面 모양’이라고 하였다. 甲骨文에서는 주로 祖上의 配偶者인 妣의 初文으로 쓰였으며, 卜辭에서는 先妣 이외에 用牲法 등의 意味로도 쓰였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으므로, 甲骨文의 解釋을 따른다.

乃 (ㄴ)⁸³

甲: 象婦女乳房側面形，為奶之初文。 乳，奶為一語之轉。《說文》有乳無奶。

解字: 女子 乳房의 側面 모양으로, 奶의 初文이다. 乳와 奶는 같은 말로서 바뀌 使用된다. 《說文解字》에 乳는 있는데 奶는 없다.

⁸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50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652

釋義: 事物의 이름이다.

王親曰乃若僞 (王親曰乃若僞)

韓譯: 王親은 占卦만 보고는 判斷하고 말하였습니다. 貞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說: 乃 曳詞之難也。象氣之出難。凡乃之屬皆从乃。𠃉, 古文乃。𠃉, 籀文乃。奴亥切(nǎi)。

譯文: 乃是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입에서 말을 꺼내기가 困難한 모양을 象形하였다. 乃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乃의 意味를 따른다. 𠃉은 乃의 古文이다. 𠃉은 乃의 籀文이다.

甲骨文 ‘乃’는 ‘奶’의 初文이다. 乳와 奶는 같은 글자로 女性의 젖가슴을 뜻한다. 그러나 《說文解字》에는 乳字는 있으나 奶字는 없으며, 말을 꺼내기가 困難한 모양이므로 ‘어렵다’는 意味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正確한 根據가 없으므로, 甲骨文의 解釋을 따른다.

[動物과 關聯된 글자]

動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𩺰(𩺰), 𩺰(亥)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𩺰 (𩺰)⁸⁴

甲: 象兩魚相遇之形, 以會邁遇之意。或增止(止)彳(彳)等為形符, 以明與行義有關。《說文》說形不確。

解字: 두 물고기가 서로 만나는 形象으로 만나다는 意味다. 혹은 止(止), 彳(彳) 등을 더해 形符로 함으로써, 明과 行의 意味와 關

⁸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442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541

聯이 있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卜辭 역시 ×을 빌려 ‘耨’로 하였다.

釋義: 만나다는 意味다.

丙子卜貞多子其延學疢又遭大雨

韓譯: 丙子日에 占을 치고, 묻습니다. 여러 王子들이 계속적으로 배우는데, 큰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說: 耨 交積材也。象對交之形。凡耨之屬皆从耨。 古候切(gòu)。

譯文: 耨는 木材를 엇갈려 쌓아 놓은 것이다. 서로 交叉한 모양을 象形하였다. 耨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耨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의 ‘耨’는 木材가 서로 交叉된 모양 또는 물고기가 서로 대가리를 맞댄 모양으로, 本義는 ‘서로 만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耨’는 ‘遭’와 같은 글자로 遭의 本字다. 甲骨文에서는 ‘彳’ 또는 ‘止’가 添加되는 등 매우 多樣한 字形을 보이고 있다.

亥 (豕)⁸⁵

甲: 字形所象不明。 許慎選釋「亥為豕」商承祚謂古豕亥一字，吳其昌謂亥字原始之初誼為豕之象形，然自甲骨文觀之，豕，亥二字字形頗不相類，其初當非一字。

解字: 字形은 確實하지 않다. 許慎은 “亥為豕”라고 解釋하였으며, 商承祚는 古代 豕와 亥는 한 글자라고 하였고, 吳其昌은 亥字는 始初에 돼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甲骨文 豕와 亥의 두 字形을 보면 자못 서로 같지 않다. 처음부터 한 글자가 아니다.

釋義: 地支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癸亥卜爭貞我黍受有年一月

⁸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61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62

韓譯: 癸亥일에 占을 쳐 묻습니다. 貞人 爭에게 묻습니다. 貞이 묻기를 商王의 발에 베틀을 심었는데, 좋은 收穫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說: 𠄎 亥也。十月，微陽起，接盛陰。从二，二，古文上字。一人男，一人女也。从乙，象裹子咳咳之形。《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凡亥之屬皆从亥。𠄎，古文亥，為豕，與豕同。亥而生子，復從一起。胡改切(hài)。

譯文: 亥는 풀뿌리다. 10월에 微微한 陽氣가 일어나 旺盛한 陰氣와 접한다. 二를 따르며, 二는 上의 古文이다. 한 사람은 男子이고, 한 사람은 女子를 나타낸다. 乙을 따르며, 胎兒의 손과 팔다리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春秋左傳》에 “위의 두 劃은 머리고, 아래의 여섯 劃은 몸이다.”라고 하였다. 亥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亥의 意味를 따른다. 𠄎는 亥의 古文이고, 豕를 代表하며 豕와 構成원리가 같다. 亥에 이르면 다시 子가 되고, 萬事 萬物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甲骨文 ‘亥’는 地支 12字 중 唯一하게 先公인 王亥의 이름으로 쓰였고, 때로는 亥字에 亼, 鳥가 添加된 形體를 보이는데, 이는 商代人들이 새를 토맹으로 여겼던 까닭이다. 徐中舒는 許慎이 「亥爲豕」라고 한 것을 根據로, 亥를 豕로 解釋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亥를 돼지로 보는 것은 中國에서 12가지 動物로 12支를 나타낸 것이 流行한 以後로 보는 見解가 있다.

[事物과 關聯된 글자]

事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丯(不), 午(午), 𠄎(亥), 庚(庚), 辰(辰), 王(王), 辛(辛)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不 (丩)⁸⁶

甲: 象花萼之柎形, 乃柎之本字。王國維, 郭沫若據此皆謂不即柎字。可從。卜辭假為否定詞, 經籍亦然。《說文》不確。

解字: 꽃받침의 形象으로 柎의 本字다. 王國維와 郭沫若은 不는 즉 柎字라고 하였다. 옳은 것으로 따른다. 卜辭에서는 假借하여 不定詞로 쓰였으며, 經書에서도 그러하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不定詞다.

𠄎 𠄏 𠄐 𠄑 𠄒 𠄓 𠄔 𠄕 (庚辰貞不于多尹𠄕)

韓譯: 庚辰日에 묻습니다. 尹들에게 근심거리가 없겠지요?

說: 丩 鳥飛上翔不下來也。从一, 一猶天也。象形。凡不之屬皆从不。方久切(fǒu)。

譯文: 不는 새가 하늘로 날아올라 빙빙 돌면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一을 따른다. 一은 곧 하늘이다. 象形이다. 不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不의 意味를 따른다.

王國維와 郭沫若은 甲骨文 ‘不’는 ‘꽃받침의 모양’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에서는 不定副詞로 假借되어 쓰였다.

午 (𠄎)⁸⁷

甲: 𠄎象束絲交午之形, 為午字初形。其後或填實作𠄏, 復省簡為𠄐。《說文》說解不確。

解字: 𠄎은 실을 가로세로로 엇갈리게 묶은 形象으로 午字의 最初 모양이다. 그 後에 間或 씨를 채워 𠄏으로 하였으며, 다시 省略하여 簡略하게 𠄐으로 하였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

⁸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26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657

⁸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9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42

다.

釋義: 地支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十 彡 卜 土 彡 彡 (甲午卜王夷凜)

韓譯: 甲午日에 占을 처 묻습니다. 商王께서 凜地에 있습니까?

說: 午 悟也。五月, 陰氣午逆陽, 冒地而出。此(予)[與]矢同意。凡午之屬皆从午。疑古切(wǔ)。

譯文: 午는 거스르다는 뜻이다. 5월이면 陰氣가 陽을 거스르고, 땅을 뚫고 나온다. 이 글자와 矢는 構成원리가 같다. 午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午의 意味를 따른다.

馬如森은 甲骨文的 ‘午’는 ‘한 타래의 실이 꼬아져 있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彡는 杵字의 初文이다. 後에 第4期, 第5期에는 彡처럼 속을 채우기도 하였다.

夷 (彡)⁸⁸

甲: 象紡塼上有綫總之形。

解字: 실뽀에 삼실이 감겨져 있는 形象이다.

釋義: 語詞이며, 發音은 惟와 같다.

彡 田 彡 彡 (夷濕田 彡 彡 受年)

韓譯: 濕地에 耕作하면, 계속 豊盛한 收穫을 얻을까요?

說: 彡 專小謹也。从彡省; 中, 財見也; 中亦聲。凡夷之屬皆从夷。

彡, 古文夷。彡, 亦古文夷。職緣切(Zhuān)。

譯文: 彡은 오로지 謹慎하다는 뜻이다. 彡의 生략형을 따른다. 彡은 草木의 가지와 잎이 갓 자라난 모양이다. 彡은 또한 發音을 나타낸다. 夷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夷의 意味를 따른다. 彡은 夷의 古文이다. 彡도 夷의 古文이다.

⁸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45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544

甲骨文 ‘庚’은 세가닥 줄을 넣어 실을 짜는 물레 모양으로, 실을 짤 때 集中해야 하므로 ‘專念’의 意味가 있다. 第1期에는 𠄎의 모양이었으나, 第3期 以後에는 아래가 불룩한 𠄎의 모양으로 되었다. 傳, 轉의 本字다.

庚 (𠄎)⁸⁹

甲: 郭沫若謂金文庚字形, 當是有耳可搖之樂器。 又謂以聲類求之, 庚當是鉦之初字。《說文》說解不確。

解字: 郭沫若是 金文 庚字의 모양을 귀가 달려 있어 흔들 수 있는 樂器로 여겼다. 또한 風流는 대개 징소리를 必要로 하기 때문에 庚을 鉦의 初字로 여긴다고 하였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天干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𠄎 𠄎 𠄎 二 𠄎 𠄎 工 (庚寅卜扶二牛示壬)

韓譯: 庚寅日에 占을 쳐 묻습니다. 貞人이 占卦에 扶를 보고 두 마리의 소를 使用하여 先公에게 祭祀를 지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說: 𠄎 位西方, 象秋時萬物庚庚有實也。 庚承己, 象人齊。凡庚之屬皆从庚。古行切(gēng)。

譯文: 庚은 서쪽에 位置한다. 가을에 萬物이 열매를 맺는 모양을 象形한것이다. 庚은 己을 이으며, 사람의 배꼽을 象形하였다. 庚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庚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庚’은 손으로 중심대를 흔들면, 양옆의 방울이 소리를 내는 古代 樂器의 모양이다. 天干의 7번째 글자로 쓰였으며, 祖上의 名으로 빌려 썼다.

辰 (𠄎)⁹⁰

⁸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5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23

⁹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8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39

甲: 商代以蜃(蛤蚌屬)殼為鎌即蚌鎌, 其制於蚌鎌背部穿二孔附繩索縛於拇指, 用以掐斷禾穗。甲骨文辰字正象縛蚌鎌於指之形。

解字: 商代에 큰 조개 껍질을 낫으로 사용하였다. 조개로 만든 낫 뒷부분에 구멍 두 개를 뚫어 노끈으로 엄지손가락에 묶고 벼를 자르는데 사용하였다. 甲骨文的 辰字는 조개로 만든 낫을 손가락에 묶은 形象이다.

釋義: 地支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貞 丙辰 不雨 (貞翌丙辰不雨)

韓譯: 貞人에게 묻습니다. 돌아오는 丙辰日에 비가 오겠습니까?

說: 辰 震也。三月, 陽氣動, 雷電振, 民農時也。物皆生, 从乙、匕, 象芒達; 厂聲也。辰, 房星, 天時也。从二, 二, 古文上字。凡辰之屬皆从辰。𠄎, 古文辰。植鄰切(chén)。

譯文: 辰은 振動한다는 뜻이다. 3월은 陽氣가 發動하여 우레와 번개가 치고, 百姓들이 農事를 짓는 時期이며 萬物이 生長한다. 乙과 匕를 따르며, 까끄라기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厂聲이다. 辰은 房星으로 天時이다. 二를 따르며, 二는 上의 古文이다. 辰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辰의 意味를 따른다. 𠄎은 辰의 古文이다.

徐中舒는 甲骨文 ‘辰’은 ‘대합조개에 손가락을 묶은 조개 낫’이라고 하였다. 古代에는 대합조개의 껍질에 구멍을 뚫어 끈을 꿰어서, 엄지손가락에 걸고 벼이삭을 자르는 道具로 썼다. 地支의 5번째 글자로 쓰였다.

王 (王)⁹¹

甲: 象刃部下向之斧形, 以主刑殺之斧鉞象徵王者之權威。

解字: 칼 날 부분이 아래로 향한 도끼의 모양이다. 주로 死刑을 執行할 때 사용하는 도끼로써 王의 權威를 象徵한다.

⁹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32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6

釋義: 先公의 이름이다.

□𠄎卜貞王賓武丁翌日亡尤

韓譯: 丁巳日에 占을 쳐 묻습니다. 大王께서 翌日 武丁에 대한 祭를 지내기 위해 儻禮를 행하려는데 災殃이 없겠습니까?

說: 王 天下所歸往也。董仲舒曰：“古之造文者，三畫而連其中謂之王。三者，天、地、人也，而參通之者王也。”孔子曰：“一貫三為王。”凡王之屬皆从王。𠄎，古文王。兩方切(wáng)。

譯文: 王은 天下가 歸依하는 곳이다. 董仲舒는 “古代에 文字를 만드는 사람이 세 劃의 가운데를 이어서 王이라 하였다. 세 劃은 天·地·人을 意味하며, 이 셋을 貫通하는 것이 王이다.”라고 하였다. 孔子는 “하나로써 셋을 貫通하는 것이 王이다.”라고 하였다. 王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王의 意味를 따른다. 𠄎은 王의 古文이다.

梁東淑은 甲骨文 ‘王’은 ‘權威의 象徵인 도끼의 모양으로, 初期에는 𠄎 모양에서 위에 가로획이 더해진 𠄎의 모양으로 되었고, 後期에 와서 지금의 王字로 定形을 이룬 것으로 推測된다.’고 하였다.

辛 (𠄎)⁹²

甲: 郭沫若謂辛象古之劓劓形，劓劓即曲刀，乃施黥之刑具，其形殆如今之圓鑿而鋒其末，刀六十度之弧形，辛字金文之作𠄎，𠄎，即其正面之圖形，作𠄎若𠄎者則縱斷之側面也，《說文》說解不確。

解字: 郭沫若은 辛은 古代의 굽은 새김칼 모양으로, 즉 墨刑을 행하는 刑罰 道具다. 그 모양은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그 끝은 둥글게 깎은 칼날이며, 칼의 몸은 활처럼 60도로 휘 모양이라고 하였다. 辛字의 金文은 𠄎와 𠄎으로 그 正面의 모양이며, 𠄎와 𠄎

⁹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6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23

으로 된 것은 세로로 잘라낸 側面의 모양이다. 《說文解字》의 解
說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天干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𠄎 𠄎 (辛丑貞)

韓譯: 辛丑日에 占을 쳐 묻습니다.

說: 𠄎 秋時萬物成而孰; 金剛; 味辛, 辛痛即泣出。 从一从辛, 辛, 皃
也。 辛承庚, 象人股。 凡辛之屬皆从辛。 息鄰切(xīn)。

譯文: 辛은 가을에 萬物이 자라서 成熟하게 된다는 뜻이다. 쇠는
단단하면서 맛이 맵다. 너무 매우면 눈물이 나온다. 一과 辛을
따른다. 辛은 罪라는 뜻이다. 辛은 庚을 이으며, 사람의 넓적다
리를 象形하였다. 辛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辛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辛’은 罪人에게 文身을 하는 칼 種類의 刑具 또는 兵器의 모양이다.
‘文身을 하다’는 意味가 있어, ‘罪’ 또는 ‘매섭다’의 뜻으로 引伸되었다.

[兵器와 關聯된 글자]

兵器와 關聯된 글자에는 𠄎(戊), 𠄎(我), 𠄎(戊), 𠄎(癸), 𠄎(寅), 𠄎(束), 𠄎(己) 등
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戊 (𠄎)⁹³

甲: 象兵器形, 蓋為戊戚之屬。 金文作 𠄎, 𠄎 等形者所象之斧戊形尤顯。

《說文》說解不確。

解字: 兵器의 모양이다. 大綱 도끼 모양의 古代 兵器에 속한다.
金文에 𠄎, 𠄎 등과 같은 것은 도끼 모양이 더욱 뚜렷하다. 《說
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⁹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5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20

釋義: 千干的 하나로 使用했다.

貞出千于戊 (貞侑于咸戊)

韓譯: 貞人是 묻습니다. 行하고 求함에 있어서 祭祀를 지내는 사람은 모두 옛날 名臣이 아니었습니까?

說: 戊 中宮也。象六甲五龍相拘絞也。 戊承丁，象人脅。凡戊之屬皆从戊。 莫候切(wù)。

譯文: 戊는 中宮이다. 六甲과 五龍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을 象形하였다. 戊는 丁을 이으며, 사람의 옆구리를 象形하였다. 戊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戊의 意味를 따른다.

趙誠은 甲骨文 ‘戊’는 ‘兵器의 모양이며, 鉞의 形體와 비슷한 도끼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甲骨文에서는 天干의 5번째 글자이며, 祖上의 名으로 쓰였다.

我 (𠄎)⁹⁴

甲: 象兵器形。 按甲骨文我字乃獨體象形，其秘似戈，故與戈同形，非從戈也。 而《說文》强分為「从戈从手」不確。

解字: 兵器의 形象이다. 甲骨文에서 獨體字 我的 字形에 의하면, 그 자루는 戈와 닮았으므로, 戈와 같은 모양이나 戈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說文解字》에서 “从戈从手”라고 無理하게 區分한 것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卜辭에서는 대부분 殷商의 自稱이다.

貞我西使亡國 (貞我西使亡國)

韓譯: 묻습니다. 商나라에서 서쪽으로 派遣된 官吏에게 災殃이 없겠습니까?

說: 𠄎 施身自謂也。 或說: 我，頃頓也。 从戈，从手。 手，或說古垂

⁹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37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809

字。一曰：古殺字。凡我之屬皆从我。𠄎，古文我。五可切(wǒ)。
 譯文：我是 자기 자신을 말한다. 或說에 我是 옆으로 기울어진
 뜻이라고 하였다. 戈와 耒을 따른다. 耒은 或說에 垂의 古文이
 다라고 하였다. 一說에는 殺의 古文이라고도 한다. 我部에 속하
 는 字는 모두 我的 意味를 따른다. 𠄎은 我的 古文이다.

徐中舒는 甲骨文 ‘我’는 ‘武器 모양의 獨體象形’이라고 하였다. 卜辭에서는 商
 王의 自稱이며, 我的 복수형인 ‘우리’로 쓰였다.

戊 (어)⁹⁵

甲：象古兵器形，與戊，歲，戍等皆斧鉞之屬，其形製並近。《說文》說
 解不確。

解字：古代 兵器의 모양이다. 戊, 歲, 戍 등은 모두 도끼에 屬한
 다. 그 모양은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 졌다. 《說文解字》의 解說
 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地支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𠄎 어 𠄎 𠄎 𠄎 (惠[惠]戊馬乎[呼]眾往)

韓譯：軍隊 組織인 戊馬와 함께 가게 할까요?

說：戍 滅也。九月，陽氣微，萬物畢成，陽下入地也。五行，土生
 於戊，盛於戊。从戊含一。凡戍之屬皆从戊。辛聿切(xū)。

譯文：戊은 消滅한다는 뜻이다. 9월에는 陽氣가 약해져 萬物이
 다 자라고, 陽氣가 땅 아래로 들어간다. 五行에서 土는 戊에서
 나서 戊에서 繁盛해진다. 一을 포함한 戊를 따른다. 戊部에 속
 하는 字는 모두 戊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戊’은 사람이 武器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지키다’, ‘軍隊組織’, ‘官名’

⁹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60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61

등으로 쓰였다.

癸 (𠄎)⁹⁶

甲: 所象形不明。羅振玉謂𠄎乃𠄎之變形, 𠄎字上象三鋒, 下象著物之柄, 乃癸之本字。吳其昌謂癸原始之初誼為矢之象形, 雙矢交揆成𠄎形𠄎形𠄎形𠄎形而得癸字。饒炯謂癸為葵之古文, 象四葉對生形所引。按皆無確證。《說文》說解不確。

解字: 𠄎의 모양은 確實하지 않다. 羅振玉은 𠄎은 𠄎의 變形으로, 𠄎의 위는 세 개의 창날 모양이고 아래는 物件을 세우는 자루의 모양이므로 癸의 本字라고 하였다. 吳其昌은 癸字는 始初부터 화살의 形象이며, 한 쌍의 화살이 交叉된 𠄎, 𠄎, 𠄎, 𠄎의 모양이었던 것이 癸字가 된 것으로 推測된다고 하였다. 饒炯은 癸는 葵의 古文이며, 네 잎이 마디마디 두 개씩 마주 붙어 나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모두 確實한 證據는 없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天干에서 使用되었다.

𠄎 未 卜 貞 旬 亡 禍 三 月

韓譯: 癸未日에 貞人이 占을 쳐서 占卦를 묻습니다. 貞人이 물기를 다음 열흘 이내에 災難이 있습니까? 이것은 3월에 占을 쳐 물은 것입니다.

說: 癸 冬時, 水土平, 可揆度也。象水从四方流入地中之形。癸承壬, 象人足。凡癸之屬皆从癸。癸, 籀文从𠄎, 从矢。居誅切(guǐ)。譯文: 癸는 겨울을 代表하는데, 이때는 물과 땅이 平平해서 測量이 可能하다. 물이 四方에서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癸는 壬을 이으며, 사람의 발의 모양을 象形하였다. 癸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癸의 意味를 따른다. 癸는 籀文이다.

⁹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156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2128

과 矢를 따른다.

甲骨文 ‘癸’는 《甲骨文精粹釋譯》의 解釋과 字形을 보면, 화살의 모양으로 여겨진다. 吳其昌도 ‘화살의 모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學者는 ‘古代 巫巫女의 춤추는 발의 모양’이라고 하였는데, 確實하지 않다. 天干의 10번째 글자이며, 祖上의 名으로도 쓰였다.

寅 (寅)⁹⁷

甲: 郭沫若謂甲骨文寅字作 𠄎 若 𠄏, 均象矢若弓矢形。按郭沫若說近是, 惟謂 𠄏 象弓矢則可商。甲骨文弓字作 𠄐, 𠄑, 𠄒 等形, 均象弓形, 而 𠄏 所從之 𠄓 與弓形相去甚遠, 故不應是弓。《說文》說解不確。

解字: 郭沫若是 甲骨文 寅字는 𠄎 와 𠄏 으로 되었는데, 𠄎 은 화살의 모양이고 𠄏 은 활과 화살의 모양이라고 하였다. 郭沫若의 解說은 平易하나, 𠄏 이 활과 화살의 모양이라고 한 것은 討論의 餘地가 있다. 甲骨文 弓字는 𠄐, 𠄑, 𠄒 등의 모양으로, 모두 활 모양이다. 그런데 𠄏 의 𠄓 和 弓의 甲骨文 모양은 서로 매우 다르므로, 甲骨文 寅에서 활의 意味는 符合되지 않는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地支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貞 𠄎 + 𠄏 貞 寅 其 雨 (貞翌甲寅其雨)

韓譯: 貞이 묻습니다. 돌아오는 甲寅日에 비가 오겠습니까?

說: 寅 隸也。正月, 陽氣動, 去黃泉, 欲上出, 陰尚彊, 象 宀 不達, 隸寅於下也。凡寅之屬皆从寅。𠄎, 古文寅。 弋 真切(yín)。

譯文: 寅은 배척하다는 뜻이다. 正月에는 陽氣가 發動하여 黃泉을 떠나 위로 나오려고 하지만, 여전히 陰氣가 強하여 위에서 덮어서 아래에서 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寅

⁹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8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38

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寅의 意味를 따른다. 𤝵은 寅의 古文이다.

甲骨文 ‘寅’은 第一期, 第二期, 第三期, 第四기에 發掘된 글자는 모두 화살의 모양이다. 다만 第五期에는 화살에 形符인 ㇇이 添加된 𤝵이 出現하였는데, 이것을 朱芳圃는 ‘兵器인 화살과 區分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郭沫若도 ‘화살의 모양’이라고 하였다. 地支의 3번째 글자로 쓰였다.

束 (𦉳)⁹⁸

甲: 象一鋒或三鋒, 四鋒之利器, 當為束之初文。

解字: 칼날이 하나 혹은 셋, 넷 있는 날카로운 兵器이다. 束가 初文이다.

釋義: 亞束는 人名이다.

丨 𠄎 𠄎 𠄎 𠄎 (十婦于亞束)

韓譯: 亞束는 열 명의 妃들과 같이 갈까요?

說: 𦉳 木芒也。象形。凡束之屬皆从束。讀若刺。七賜切(cì)。

譯文: 束는 나무 가지다. 象形이다. 束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束의 意味를 따른다. 刺와 같이 發音한다.

甲骨文 ‘束’의 字形인 𦉳, 𦉳, 𦉳 등은 모두 一期에 發掘된 것이고, 𦉳는 三期, 𦉳는 四기에 發掘된 것이다. 이러한 字形들을 볼 때, 모두 날카로운 兵器의 모양으로 推測된다.

己 (己)⁹⁹

甲: 羅振玉謂己象雉射之繳, 郭沫若從羅說, 並謂己當是雉之本字。 葉

⁹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6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42

⁹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55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21

玉森謂象綸索之形，取約束之誼。《說文》說解不確。

解字: 羅振玉은 己는 화살이 發射되는 주살끈이라고 하였다. 郭沫若은 羅振玉의 解說을 따르고, 己는 隹의 本字라고 하였다. 葉玉森은 벼릿줄의 모양이며, 約束의 誼를 취한다고 하였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確實하지 않다.

釋義: 先公, 先王과 先妣의 廟號로 使用하였다.

己丑卜 設 (己丑卜設)

韓譯: 己丑日에 真人은 設에게 占卦로 물었습니다.

說: 己 中宮也。象萬物辟藏誼形也。己承戊，象人腹。凡己之屬皆从己。 𠄎，古文己。居擬切(ji)。

譯文: 己는 中宮이다. 萬物이 오그라들어 구부러진 모양을 象形하였다. 己는 戊를 이으며, 사람의 배를 象形하였다. 己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己의 意味를 따른다. 𠄎은 己의 古文이다.

羅振玉은 甲骨文 ‘己’는 ‘새를 잡기 위해 화살에 단 실인 繳의 形象’이라고 하였고, 葉玉森은 꼭 繳이라기 보다 ‘무언가를 끈으로 동여매는 모양’이라고 했다. 甲骨文 ‘己’의 字形을 보면, 화살의 주살끈으로 여겨진다. 天干의 6번째 글자이며, 祖上의 名으로 빌려 썼다.

[祭祀와 關聯된 글자]

祭祀와 關聯된 글자에는 異(異), 巳(巳)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異 (異)¹⁰⁰

甲: 異 象人舉子之形，子即祭祀中象微神主之小兒，即所謂「尸」。舉「尸」

¹⁰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25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380

即會意為祀。在書寫使用中，遂譌作異，𠄎等形。《說文》：「異，分也」為後起義。

解字: 異은 사람이 아이를 치켜들고 있는 形象이며, 子는 祭祀에서 位牌로서의 어린아이의 모양이다. 즉 尸를 말한다. 尸를 치켜든 것은 곧 祀이다. 옮겨 쓰면서 𠄎의 머리와 팔이 서로 접붙어 점차 異, 𠄎 등으로 모양이 잘못 되었다. 《說文解字》에서 “異, 分也.”라는 것은 後期에 생긴 意味다.

釋義: 禩(祀)로 推測이 되며 祭祀이다.

… 𠄎 卜 貞 異 佳 其 不 雨 (…申卜貞異佳其不雨)

韓譯: 占을 쳐 묻습니다. 어찌하여 비는 오지 않고 천둥만 치는 것입니까?

說: 異 分也。从収, 从畀。畀, 予也。凡異之屬皆从異。羊吏切(yì)。

譯文: 異는 나누다는 뜻이다. 収와 畀를 따른다. 畀는 준다는 意味다. 異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異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異’는 ‘禩’로 推測이 되며, 禩는 祭祀의 意味다. 《說文解字》에서 “異, 分也.”라고 한 것은 後期에 생긴 뜻이므로, 甲骨文에서의 解釋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巳 (𠄎)¹⁰¹

甲: 卜辭以 𠄎(子)為地支之巳, 腹以 𠄎之省形 𠄎為祭祀之祀。

解字: 卜辭에서는 𠄎(子)를 地支의 巳로 하고, 𠄎의 모양을 省略해서 𠄎로 하여 祭祀의 祀로 使用했다.

釋義: 祭祀다.

辛酉王田于鷄泉[麓] 隻[獲]大霸虎在十月佳[唯]王三祀禩日

¹⁰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91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41

韓譯: 帝辛 제위 3年 10月 辛酉日에 大王은 鷄籠으로 사냥을 가서 얼룩무늬와 斑點이 있는 큰 호랑이를 잡았다. 雩祭를 지내 成功的인 사냥을 慶祝했다.

說: 巳 巳也。四月，陽氣已出，陰氣已藏，萬物見，成文章，故巳為蛇，象形。凡巳之屬皆从巳。詳里切(sì)。

譯文: 巳는 그치다는 뜻이다. 4월에 이미 陰氣가 사라지고 陽氣가 생기면 萬物이 울긋불긋 모습을 드러내므로 巳는 뱀의 모양을 象形한 것이다. 巳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巳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巳’는 祖上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祭祀로, 子(子)의 모양을 省略해서 巳(巳)로 하여 祭祀의 祀로 使用했다.

[其他 글자]

其他 글자에는 𠄎(申), 乙(乙), 丙(丙), 丁(丁), 亞(亞), 壬(壬), 古(古), 克(克)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申 (𠄎)¹⁰²

甲: 葉玉森謂甲骨文字象電耀屈折形。《說文》說形不確。

解字: 葉玉森은 甲骨文的 申字는 번개 빛이 구부러져 꺾이는 形象이라고 하였다. 《說文解字》는 正確하지 않다.

釋義: 地支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𠄎工𠄎 𠄎 𠄎 𠄎 (旬壬申夕月有食)

韓譯: 壬申日 저녁에 月蝕이 發生하였습니다.

說: 申 神也。七月，陰氣成，體自申束。从 𠄎，自持也。吏臣舖時

¹⁰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99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44

聽事，申旦政也。凡申之屬皆从申。𠄎，古文申。𠄎，籀文申。失人切(shēn)。

譯文: 申은 편다는 뜻이다. 7월에는 陰氣가 형성되어 몸을 스스로 뾰다 오무렷다하게 된다. 申을 따르고, 스스로 維持한다는 뜻이다. 官吏들은 申時를 기준으로 식사하고 業務를 보았는데, 그것이 申의 政治다. 申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申의 意味를 따른다. 𠄎은 申의 古文이고, 𠄎은 申의 籀文이다.

趙誠은 甲骨文 ‘申’은 ‘천둥이 치는 모양으로 電의 本字이며, 篆書에서 字形이 訛傳되어 原來의 形體를 잃게 되었다.’고 하였다. 地支의 9번째 글자로 쓰였다.

乙 (乙)¹⁰³

甲: 所象形不明。郭沫若謂乙象魚腸，吳其昌謂乙象刀形，故乙義為刀，唐蘭甲骨文乙有作 乙 者乃玄鳥之 所從。按以上諸說皆無確據。

解字: 모양은 確實하지 않다. 郭沫若是 乙이 물고기의 창자 모양이라고 하였고, 吳其昌은 乙이 칼 모양이므로 칼의 意味라고 하였다. 唐蘭은 甲骨文의 乙이 乙로 되어 있어서, 玄鳥의 乙에서 나와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說들은 모두 正確한 根據는 없다.

釋義: 天干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乙亥易日

韓譯: 乙亥日의 날씨가 어찌하여 흐리어 덮어 가리고 있습니까?

說: 乙 象春艸木冤曲而出，陰氣尚彊，其出乙乙也。與 丨 同意。乙承甲，象人頸。凡乙之屬皆从乙。於筆切(yi)。

譯文: 乙은 봄에 草木이 구부러져 나오는 것을 象形하였는데, 陰氣가 여전히 강하여 그 나오는 것이 어렵다. 丨과 같은 뜻이다.

¹⁰³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3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17

乙은 甲을 이으며, 사람의 목을 象形하였다. 乙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乙의 意味를 따른다.

郭沫若是 甲骨文 ‘乙’은 ‘물고기의 창자 또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先王, 先妣의 諡號로 빌려 썼으며, 天干의 2번째 글자로 쓰였다.

丙 (丙)¹⁰⁴

甲: 所象形不明。郭沫若謂丙象魚尾，于省吾謂象物之底座，葉玉森謂象几形。按諸說皆無確據。《說文》說解不確。

解字: 丙의 모양은 分明하지 않다. 郭沫若是 丙字는 물고기 꼬리의 모양이라고 하였고, 于省吾는 物件의 받침 모양이라고 하였으며, 葉玉森은 案席 모양이라고 하였다. 이 解說 모두 確實한 證據가 없다. 《說文解字》의 解說 역시 根據가 옳지 않다.

釋義: 人名이다.

貞 丙 亡 蠱 (貞母丙亡蠱)

韓譯: 貞이 묻습니다. 여전히 商王의 母名, 母丙께서 寄生蟲의 해로움을 받고 있습니까?

說: 丙 位南方，萬物成，炳然。陰氣初起，陽氣將虧。从一入冂。一者，陽也。丙承乙，象人肩。凡丙之屬皆从丙。兵永切(bing)。
譯文: 丙은 南方에 위치한다. 萬物이 자라서 뚜렷한 모습을 이룬다. 陰氣가 처음으로 일어나고, 陽氣는 사라지려고 한다. 一, 入, 冂을 따른다. 一은 陽이다. 丙은 乙을 이으며, 사람의 어깨를 象形하였다. 丙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丙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丙’의 字形은 丙, 丙, 丙으로, 안쪽의 모양은 入(入)과 같다. 점차 冂에 入(入)을 합친 丙字가 만들어져, 入과 混用된 것으로 보인다. 郭沫若是 ‘물

¹⁰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4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19

고기의 꼬리 모양'이라고 하였다. 丙字는 天干의 3번째 글자로 빌려 썼으며, 그 외에 人名, 地名으로도 쓰였다.

丁 (口)¹⁰⁵

甲: 據半坡遺址古建築復原研究, 參照甲骨文宮字作宀形, 宀象圓形圍牆上架設屋頂之形, 屋頂斜面上開有通氣窗孔, 作宀形, 窗下圍牆中又開通出入之門而作宀形, 故甲骨文以窗孔之口形表示頂顛之頂, 即頂之本字。

解字: 半坡 遺跡地의 古建築 復原 研究에 의하면, 甲骨文 宮字의 모양은 이며, 宀은 圓形으로 에워싼 담 위에 架設된 지붕 모양이고, 위의 口은 지붕 傾斜面에 空氣가 통하도록 열려 있는 지붕창의 모양이다. 그리고 아래의 口은 지붕창 밑의 에워싼 담에 나 있는 出入門의 모양이다. 甲骨文에서 지붕창으로서의 口 모양은 頂顛의 頂을 나타낸다. 즉 頂의 本字다. 다시 假借되어 天干의 丁으로 使用하였다.

釋義: 天神을 가리킨다.

𠄎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貞告丁子丁三牛)

韓譯: 문습니다. 神主에게 어린 소 3마리를 가져오라고 알릴까요?

說: 丁 夏時萬物皆丁實。象形。丁承丙，象人心。凡丁之屬皆从丁。當經切(dīng)。

譯文: 丁은 여름에 萬物이 旺盛하다는 뜻이다. 象形이다. 丁은 丙을 이으며, 사람의 심장을 象形하였다. 丁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丁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丁'은 口, ■, ● 등의 모양인데, 趙誠은 '사람의 정수리 모양'이라고

¹⁰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4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19

하였고, 徐中舒는 ‘甲骨文 (宮)의 가운데는 通風窓과 出入門이 포개진 모양으로, 通風窓이 頂의 本字’라고 하였다. 後期에는 ■으로 쓰였고, 楷書體에 와서 丁으로 되었다. 干支 이외에 人名, 神名, 祭祀名, 祖上의 名으로도 쓰였다.

亞 (亞)¹⁰⁶

甲: 據甲骨文亞字所象之形, 與殷墟陵墓所呈之亞形相參照, 甲骨文亞字蓋象古代聚族而居之大型建築平面圖形。

解字: 甲骨文亞字的 모양을 根據로 하여, 殷墟 陵墓의 亞 모양과 서로 比較하여 보면 甲骨文의 亞字는 大略 古代에 家族이 모여서 居住하던 大型 建築物의 平面圖 모양이다.

釋義: 先祖와 王室의 地位를 나타낸다.

… 亞宗 (…其作亞宗)

韓譯: 장차 祖上의 神主를 모셔 놓는 祠堂을 지을까요?

說: 亞 醜也。象人局背之形。賈侍中說, 以為次弟也。凡亞之屬皆从亞。衣駕切(yà)。

譯文: 亞는 醜惡하다는 뜻이다. 곽사등이 모습을 象形하였다. 賈侍中은 亞는 다음 順序라는 뜻으로 한다고 하였다. 亞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亞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亞’의 解釋으로 ‘방이 넷 있는 모양’, ‘商代 王陵의 墓室 모양’ 또는 ‘建物 內의 모퉁이를 浮刻한 모양’이라는 등으로 多様한데, 모두 建築物에 關聯된 것이다.

壬 (壬)¹⁰⁷

甲: 字形所象不明。吳其昌謂壬為兩刃之斧。郭沫若謂壬字乃若字

¹⁰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2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09

¹⁰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566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2126

之轉變，以聲類求之，當即「鑿謂石針」之鑿。按吳郭二說皆不可據。《說文》說解不確。

解字: 字形이 不分明하다. 吳其昌은 壬字는 양날도끼라고 하였다. 郭沫若은 壬字는 곧 𠄎와 𠄎字의 轉變으로, 發音은 大概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鑿謂石針”의 鑿에 該當한다고 하였다. 두 解說 모두 根據가 옳지 않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天干의 하나로 使用되었다.

⊚ 𠄎 卜 𠄎 貞 五 羌 卯 五 牛

韓譯: 壬申日에 占을 쳐 묻습니다. 貞은 𠄎에게 羌인 다섯 사람과 다섯 마리의 소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說: 壬 位北方也。陰極陽生，故《易》曰：“龍戰于野。”戰者，接也。象人裹妊之形。承亥壬以子，生之叙也。與巫同意。壬承辛，象人脛。脛，任體也。凡壬之屬皆从壬。如林切(rén)。

譯文: 壬은 北方에 위치한다. 陰이 極에 달하면 陽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易經》에서는 “陽인 龍이 陰인 野와 서로 교접한다.”라고 하였다. 戰은 교접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妊娠한 모양을 象形하였다. 亥와 壬이 子로 이어지는 것은 태어나는 順序이다. 巫와 構成원리가 같다. 壬은 辛을 이으며, 사람의 정강이를 象形하였다. 정강이는 몸체를 지탱한다. 壬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壬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壬’에 대한 解釋으로, 吳其昌은 ‘양날도끼’, 郭沫若은 ‘돌침’, 趙誠은 ‘천을 짜는 실의 모양’이라는 등 多樣하나, 모두 根據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天干의 9번째 글자로 쓰였으며, 祖上의 名으로도 쓰였다.

古 (𠄎)¹⁰⁸

¹⁰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217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312

甲: 從𠬞(口)從中或申, 中為聲符, 即母字。金文與甲骨文略同, 惟將中之虛匡填實作𠬞。

解字: 𠬞와 聲符인 中 혹은 申을 따르며, 즉 母字다. 金文은 甲骨文과 類似하나, 中의 가운데가 채워진 𠬞으로 되어 있다.

釋義: 人名이다.

十 子 卜 𠬞 𠬞 酒 才 在 疾 不 从 王 古 (甲子卜旁貞酒才在疾不从王古)

韓譯: 甲子일에 古을 치고, 旁이 묻습니다. 𠬞이 過飲으로 인해 病中에 있는데, 大王의 分부를 이행하지 못할까요?

說: 古 故也。从十口, 識前言者也。凡古之屬皆从古。𠬞, 古文古。公戶切(gū)。

譯文: 古는 오래되다는 뜻이다. 十과 口를 따른다. 오래전의 말을 記憶하는 것이다. 古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古의 意味를 따른다. 𠬞은 古의 古文이다.

方迷𠬞은 甲骨文 ‘古’는 ‘口에 中 또는 申을 聲符로 한 글자’라고 하였는데, 造字의 背景은 알 수 없다. 字形은 金文과 類似하나, 金文에서는 中의 가운데가 막혀 있는 𠬞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一般的으로 ‘故’로 發音한다.

克 (𠬞)¹⁰⁹

甲: 象鼓槌之形, 金文皮字從之。《說文》不確。

解字: 망치로 북을 치는 形象이며, 金文에서는 皮字를 따른다. 《說文解字》의 解釋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能이다.

𠬞 𠬞 𠬞 (貞疾 𠬞克)

韓譯: 묻습니다: 病勢를 이겨낼까요?

¹⁰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7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47

說: 𠂔 肩也; 象屋下刻木之形。凡克之屬皆从克。𠂔, 古文克。
𠂔, 亦古文克。苦得切(kè)。

譯文: 克은 이겨내다는 뜻이다. 지붕 아래에서 나무를 깎거나 새기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克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克의 意味를 따른다. 𠂔은 克의 古文이다. 𠂔도 克의 古文이다.

趙誠은 甲骨文 ‘克’은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있는 모양으로, 그 本義는 「어깨로 지다」이지만, 「이겨내다」, 「말다」로 引申되었다.’라고 하였다. 《甲骨文精粹釋譯》에서도 大部分 ‘能’으로 解釋하였다.

지금까지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중에서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와 《說文解字》 部首字의 解說이 다른 글자를 比較하였다.

예를 들면, 甲骨文字典에서 𠂔(亞)는 ‘古代에 家族이 모여서 居住하던 大型 建築物의 平面圖 모양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서는 亞(亞)는 ‘醜惡하다는 뜻으로, 곱사등이 모습을 象形하였다.’라고 하였다. 甲骨文의 ‘𠂔’와 《說文解字》의 ‘亞’는 字形은 비슷하나, 解說은 서로 다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甲骨文字典에서 𠂔(午)는 ‘실을 가로세로로 엇갈리게 묶은 形象으로, 午字의 最初 모양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서는 𠂔(午)는 ‘거스른다는 뜻으로, 5월이면 陰氣가 陽을 거스르고 땅을 뚫고 나온다.’라고 하였다. 이 글자의 字形은 서로 비슷하지 않으며, 解說 또한 서로 다르다.

(2)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

字綴이란 造字 過程에서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키는 것으로, 形이 音·義와 함께 한 單位로 합쳐지는 特性을 갖고 있지 않으며, 單獨으로 새로운 글자를 構成할 수도 없다. 다만 字素에 덧붙여서 原來 字素의 音과 義를 變化시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낼 뿐이다.

예를 들면, 之(之)에서 ‘一’은 하나의 字綴이 된다. ‘一’은 가로획으로서 假想的인 表示일 뿐이다. 그러나 白(白)에서의 ‘一’은 字綴이 아니라, 하나의 字素가 된다. 따라서 假想的으로 表示한 것인가 아니면, 明確하게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字綴 또는 字素를 區分하는 重要한 基準이 된다.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를 사람/動物, 事物, 兵器와 關聯된 글자로 分類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動物과 關聯된 글자]

사람/動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之(之), 𠂔(𠂔)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之 (之)¹¹⁰

甲: 從止(止)在一上, 止為人足, 一為地, 象人足於地上有所往也。

解字: 止가 一 위에 있는 것을 따르며, 止는 사람의 발이고, 一은 땅이다. 一定한 곳에 이르러 사람의 발이 땅 위에 있는 모양이다. 之는 字綴이 붙어 있는 獨立字素다.

釋義: 人名이다.

貞令之 (貞令之)

韓譯: 문습니다. 之의 命습니다.

說: 止 出也。 象艸過中, 枝莖益大, 有所之。 一者, 地也。 凡之之

¹¹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67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829

屬皆从之。 止而切(zhī)。

譯文: 之는 자라 나온다는 뜻이다. 풀이 싹의 過程을 지나, 가지와 줄기가 점차 크게 자라난 모양이다. 一은 땅을 나타낸다. 之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之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之’의 字形을 보면, 사람의 발이 땅 ‘一’ 위에 있으므로 ‘이르다’, ‘到達하다’는 意味로도 쓰인다. 李圃의 《甲骨文文字學》에 ㄣ의 모양으로도 되어 있는데, 李圃는 ㄣ와 ㄣ은 并見¹¹¹이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는 풀이나 줄기가 자라나는 모양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解釋을 따른다. ㄣ의 아래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菁 (𦰇)¹¹²

甲: 象兩魚相遇之形, 以會遭遇之意。 或增 止(止), 彳(彳)等為形符, 以明與行義有關。 《說文》說形不確。

解字: 두 물고기가 서로 만나는 形象으로 만나다는 意味다. 혹은 止(止), 彳(彳) 등을 더해 形符로 함으로써, 明과 行의 意味와 關聯이 있다. 《說文解字》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釋義: 만나다는 意味다.

丙子卜貞多子其延學疫又邁大雨

韓譯: 丙子日에 占을 치고, 묻습니다. 여러 王子들이 계속적으로 배우는데 큰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說: 菁 交積材也。象對交之形。凡菁之屬皆从菁。 古候切(gòu)。

譯文: 菁는 엇갈려 쌓아 놓은 木材이다. 材木을 縱橫으로 서로 交叉한 모양을 象形하였다. 菁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菁의 意味를 따른다.

¹¹¹ 李圃, 《甲骨文文字學》, 學林出版社出版, 1995, p.37

¹¹²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442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541

甲骨文 ‘𠄎’의 字形은 두 물고기가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 사이를 가리킨다. 于省吾는 ‘本義는 「서로 만나다」라는 뜻이고, 遯의 本字’라고 하였다. 甲骨文에서는 ‘宀’ 또는 ‘止’가 添加된 매우 多樣的 字形을 보이고 있다.¹¹³ 𠄎의 가운데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事物과 關聯된 글자]

事物과 關聯된 글자에는 員(員), 方(方), 貞(貞), 泉(泉), 易(易)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員 (員)¹¹⁴

甲: 從 𠄎 從 鼎(鼎), 𠄎象鼎正視圓口之形, 故甲骨文員應為圓字初文。

解字: 𠄎와 鼎을 따른다. 𠄎은 솥 가운데가 보이는 둥근 아가리의 形象이다. 그러므로 甲骨文의 員은 마땅히 圓의 初文이다.

釋義: 地名이다.

田于員 (田于員)

韓譯: 員으로 되어 있는 사냥터로 갑니다.

說: 員 物數也。从員, 口聲。凡員之屬皆从員。 泉, 籀文从鼎。 王權切(yuán)。

譯文: 員은 物件의 數量이다. 員을 따르고, 口聲이다. 員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員의 意味를 따른다. 泉은 員의 籀文으로 鼎을 따른다.

甲骨文 ‘員’의 字形은 둥근 아가리를 가진 솥의 모양으로, 위의 ‘宀’은 솥의 아가리로 飲食物 또는 事物이 들어가는 形象이라고 볼 수 있다. 員의 위에 있는

¹¹³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1979, p.179

¹¹⁴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00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849

‘ㅇ’은 字綴이다.

方 (𠄎)¹¹⁵

甲: 𠄎象耒之形，上短橫象柄首橫木，下長橫即足所蹈履處，旁兩短劃或即飾文。

解字: 𠄎은 쟁기의 形象이다. 위의 짧은 가로획은 손잡이에 가로 질러 놓은 나무고, 아래의 긴 가로획은 즉 발로 밟는 곳이며, 옆의 두 짧은 획은 무늬를 粧飾한 것이다.

釋義: 祭名, 즉 四方의 祭다.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韓譯: 𠄎 方을 칠까요?

說: 𠄎 併船也。象兩舟省、總頭形。凡方之屬皆从方。𠄎, 方或从水。府良切(fāng)。

譯文: 方은 서로 합쳐진 두 척의 배다. 두 척의 배를 하나로 합쳐, 뱃머리를 끈으로 함께 묶은 모양을 象形하였다. 方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方의 意味를 따른다. 𠄎은 方의 或字이며, 水를 따른다.

甲骨文 ‘方’은 가래와 같이 흙을 뒤엎는 農器具의 側面 모양으로, 위는 손잡이고, 아래는 발로 밟는 部分이다. 方向을 잘 調節해야 하는 農器具여서 ‘方向’의 意味로 引申되었으며, 甲骨文에서는 四方, 向方, 祭祀名, 方國名 등으로 쓰였다.¹¹⁶ 《說文解字》에서 ‘서로 합쳐진 두 척의 배’라고 하였는데, 正確한 根據는 없다. 𠄎의 위에 있는 ‘ㄱ’은 字綴이다.

𠄎 (𠄎)¹¹⁷

¹¹⁵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95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166

¹¹⁶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953

¹¹⁷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758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940

甲: 從𠃉從凵, 凵或省作凵: 𠃉象圓弧形酒器。凵, 凵乃承𠃉之座。或省凵, 凵而徑作𠃉, 𠃉或譌作𠃉, 均為卣之本字, 與金文卣字諸形𠃉, 𠃉, 𠃉等略同。《說文》有卣字無卣字, 卣字實即卣字。

解字: 𠃉와 凵을 따르며, 凵은 간혹 省略하여 凵으로도 하였고 𠃉은 둥근 표주박 모양의 술 담는 容器다. 凵와 凵은 곧 𠃉을 받드는 받침이다. 혹은 凵와 凵을 省略하여 바로 𠃉로도 하였고, 𠃉이 간혹 잘못되어 𠃉으로도 되었는데, 모두 卣의 本字다. 金文의 卣字는 𠃉, 𠃉, 𠃉 등의 모양으로 모두 비슷하다. 《說文解字》에 卣字는 있지만 卣字는 없는데, 事實 卣字는 곧 卣字다.

釋義: 酒器다.

…𠃉…𠃉𠃉𠃉 (…旅…鬯五卣)

韓譯: … 깃발 아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 술 다섯 병을 담아 올까요?

說: 卣 艸木實垂卣卣然。象形。凡卣之屬皆从卣。讀若調。𠃉, 籀文三卣為卣。徒遼切(tiáo)。

釋文: 卣는 草木의 열매가 늘어져 주렁주렁한 모양이다. 象形이다. 卣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卣의 意味를 따른다. 調와 같이 發音한다. 𠃉은 卣의 籀文으로, 세 개의 卣가 組合된 것이다.

甲骨文 ‘卣’는 술병의 모양으로, 가운데의 ‘丩’은 술이 담겨 있는 形象이다. 𠃉는 孟鼎, 𠃉는 三期, 𠃉는 毛公鼎에서 發掘된 것으로, 모두 술을 담는 그릇이다. ‘卣’와 ‘卣’는 같은 글자이며, 𠃉의 가운데에 있는 ‘丩’은 字綴이다.

录 (卣)¹¹⁸

甲: 疑象井轆轤之形, 為轆之初文。上象桔槔, 下象汲水器, 小點象水

¹¹⁸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書出版社, 1989, p.774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书社, 2001, p.947

滴形。

解字: 우물의 도르래 모양으로 疑心되며, 轆의 初文이다. 위는 두레박틀 모양이고, 아래는 물을 길는 容器이며, 작은 點은 물방울 모양이다.

釋義: 人名이다.

㒼 㒾… (泉人…)

韓譯: 泉人들에게…

說: 𣵿 刻木泉泉也。象形。凡泉之屬皆从泉。盧谷切(lù)。

譯文: 泉은 나무토막을 파서 아로새긴 것이 하나하나 셀 수 있을 만큼 歷歷하다는 뜻이다. 象形이다. 泉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泉의 意味를 따른다.

甲骨文 ‘泉’은 물을 길는 容器의 모양으로, 轆의 初文이다. 그러나 《說文解字》의 解說은 ‘나무토막을 파서 아로새긴 것으로,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正確한 根據가 없다. 㒼의 가운데에 있는 ‘㒾’은 字綴이다.

易 (𣵿)¹¹⁹

甲: 原字為𣵿, 象兩酒器相傾注承受之形, 故會賜與之義, 引伸之而有更易之義。後省為𣵿, 乃截取𣵿之部份而成。

解字: 原字는 𣵿 모양이다. 두 술잔을 서로 기울어 따르고 받는 形象으로 賜與의 意味다. 引伸되어 바꾸어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後에 省略하여 𣵿으로 되었는데, 즉 𣵿의 部分에서 截取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釋義: 賜로 읽으며, 賞賜이다.

十 子 卜 𣵿 貞 王 疾 齒 亡 易

韓譯: 甲子日에 占을 치고, 殼이 묻습니다. 大王의 이가 아픈데

¹¹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06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309

뺨을까요?

說: 易 蜥易, 蠃蜓, 守宮也。象形。《祕書》說, 日月為易, 象陰陽也。一曰: 从勿。凡易之屬皆从易。羊益切(yi)。

譯文: 易은 蜥易 또는 蠃蜓, 守宮이라고 부른다. 象形이다. 《祕書》에 日과 月의 두 글자가 합쳐져 易이 되고, 陰陽의 變易을 象徵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一說에는 旗勿의 勿을 따른다고 한다. 易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易의 意味를 따른다.

徐中舒는 甲骨文 ‘易’는 ‘술병을 기울여 다른 병에 술을 따르는 모양으로 益의 初文이다.’라고 하였다. ‘주다’, ‘바꾸다’ 즉 ‘이를 뺨다’는 뜻이 있다. 彡의 왼쪽에 있는 ‘彡’은 字綴이다.

[兵器와 關聯된 글자]

兵器와 關聯된 글자에는 彡(勿), 彡(至) 등이 있는데,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을 比較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勿 (彡)¹²⁰

甲: 從彡從二, 彡象弓形, 其旁之二乃所以表示弓弦之振動。引弓而發矢則弓弦撥動, 故發弓撥弦乃勿之本義。

解字: 彡와 二을 따른다. 彡은 활 모양이고, 그 옆의 二은 곧 활시위가 振動하는 것을 나타낸다. 활을 당겨 화살을 쏘는 것은 곧 활시위가 떨림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을 쏘아 시위의 울림을 일으키는 곧 勿의 本義다.

釋義: 不定詞다.

貞勿商牧六月

¹²⁰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043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293

韓譯: 문습니다. 牧에게 賞을 주지 말까요? 6월에.

說: 勿 州里所建旗。象其柄,有三游。雜帛,幅半異。所以趣民,故遽,稱勿勿。凡勿之屬皆从勿。𠄎,勿或从𠄎。文弗切(wù)。

譯文: 勿은 마을에 세운 깃발이다. 깃대와 깃대 끝에 세 개의 旗가 나부끼며 달려 있는 모양을 象形하였다. 깃발 천의 色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고, 전체 폭의 半은 赤色이고, 半은 白色으로 다르다. 百姓들을 재촉하여 모이게 하는 信號로 使用하였기 때문에, 매우 急迫한 意味를 나타낸다. 또한 急迫함을 勿勿이라고 稱한다. 勿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勿의 意味를 따른다. 𠄎은 勿의 或字이며, 𠄎을 따른다.

甲骨文 ‘勿’은 활시위가 振動하며, 떠는 것을 象形한 것이다. 徐中舒는 ‘활시위가 떠는 모양’, 裘錫圭는 ‘가래로 흙을 파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름의 색깔, 物의 初文, 發의 初文이라는 등의 多様な 解釋이 있으나, 甲骨文에서는 不定詞로 不, 弗, 亡 등으로 쓰였다. 𠄎의 가운데에 있는 ‘㇇’은 字綴이다.

至 (𠄎)¹²¹

甲: 從倒𠄎(矢)從一, 一象地。羅振玉謂象矢遠夾降至地之形。可從。

解字: 𠄎를 거꾸로 한 것과 一을 따르며, 一은 땅의 모양이다. 羅振玉은 화살이 멀리서 날아와 땅에 떨어져 닿는 形象이라고 하였다. 至는 字綴이 붙어 있는 獨立字素다.

釋義: 오다는 意味다.

𠄎 𠄎 日 𠄎 酒 (其至日戊酒)

韓譯: 夏至에 이르는 戊日에 酒祭를 지낼까요?

說: 𠄎 鳥飛从高下至地也。从一, 一猶地也。象形。不, 上去; 而

¹²¹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89, p.1272 및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p.1657

至，下來也。凡至之屬皆從至。𠄎，古文至。脂利切(zhì)。

譯文: 至는 새가 높은 곳에서 날아와 땅에 이른다는 뜻이다. 一을 따르며, 一은 마치 地面과 같다. 象形이다. 不是 새가 위로 날아 오르는 것인데, 至는 새가 아래로 날아 내려오는 것이다. 至部에 속하는 字는 모두 至의 意味를 따른다. 𠄎은 至의 古文이다.

甲骨文 ‘至’의 위는 화살이고, 아래의 ‘一’은 땅의 모양이다. 羅振玉은 ‘화살이 멀리서 날아와 땅에 떨어져 닿는 形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說文解字》에서는 “鳥飛从高下至地也。”라고 하였는데, 正確한 根據가 없다. 𠄎의 아래에 있는 ‘一’은 字綴이다.

지금까지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중에서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와 《說文解字》 部首字의 解說이 다른 글자를 比較하였다.

예를 들면, 甲骨文字典에서 𠄎(方)은 ‘쟁기의 形象으로, 위의 짧은 가로획은 손잡이에 가로질러 놓은 나무이고, 그 양옆의 두 짧은 세로획은 무늬를 粧飾한 것이며, 아랫부분은 발로 밟는 곳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서는 𠄎(方)은 ‘두 척의 배를 하나로 합쳐, 뱃머리를 끈으로 함께 묶은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甲骨文의 ‘𠄎’과 《說文解字》의 ‘𠄎’의 字形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說文解字》에서의 解說은 甲骨文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甲骨文 ‘𠄎’의 字形에서 ‘一’은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키는 字綴이다.

IV. 結論

《甲骨文文字學》에서 李圃가 말하는 字素는 漢字를 이루는 構成要素로서 漢字의 特性에 따른 制約을 嚴格하게 받고 있으며, 許慎의 《說文解字》에서의 部首 또한 가장 基本的인 글자를 部首로 삼아, 每字 字形의 構造 原理에 따라 글자들을 그 根源에 맞게 歸屬시킨 것이기 때문에, 李圃의 字素와 許慎이 創案한 部首는 漢字를 構成하는 基本要素로서 그 性格이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甲骨文的 字形이 亻, 廾, 廾, 廾, 廾, 廾, 廾, 廾, 廾 등과 같이 大部分 사람, 動物, 自然, 用器와 關聯된 글자가 많은 것을 보면, 甲骨文字를 使用하던 古代社會의 生活, 宗教, 狩獵 등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論文에서는 李圃의 《甲骨文文字學》 字素 348字 중에서 《說文解字》 部首字와 一致하는 것을 中心으로 比較 研究하였다. 먼저 그것을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같은 글자와 다른 글자로 나누고, 다시 《說文解字》의 解說과 같은 글자는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와 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準字素」로 分類하였다. 그리고 《說文解字》의 解說과 다른 글자는 모두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로 나누어 記述하였다.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같은 글자 중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에는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가 亻(人), 頁(頁), 欠(欠), 死(死), 夭(夭), 山(山), 晶(晶), 夕(夕), 石(石), 火(火), 鳥(鳥), 隹(隹), 虎(虎), 象(象), 羊(羊), 來(來), 禾(禾), 黍(黍), 木(木), 未(未), 斤(斤), 缶(缶), 皿(皿), 壺(壺), 鼎(鼎), 用(用), 巫(巫), 丹(丹), 卜(卜), 一(一), 五(五), 十(十) 등으로 總 139字이고,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가 立(立), 長(長), 老(老), 亦(亦), 疒(疒), 夫(夫), 豆(豆), 食(食), 鹵(鹵), 鬯(鬯), 日(日), 九(九), 斤(斤), 力(力), 率(率), 日(日), 月(月), 水(水), 雨(雨), 乞(乞), 丘(丘), 土(土), 丹(丹), 才(才), 米(米), 生(生), 上(上), 甘(甘), 束(束), 西(西), 亡(亡)으로 總 32字이며, 「準字素(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는 死(死), 包(包), 疒(疒), 廌(廌), 出(出)로 總 5字다.

그리고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다른 글자는 모두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로서,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가 卩(卩), 黃(黃), 隹(隹)

(董), 乚(匕), 乃(乃), 乙(乙), 耑(耑), 丙(丙), 丩(不), 午(午), 東(東), 庚(庚), 辰(辰), 申(申), 戊(戊), 我(我), 戊(戊), 癸(癸), 寅(寅), 王(王), 辛(辛), 束(束), 己(己), 口(丁), 亞(亞), 異(異), 巳(巳), 亥(亥), 壬(壬), 古(古), 克(克)으로 總 31字이고,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가 之(之), 耑(耑), 員(員), 方(方), 貞(貞), 泉(泉), 勿(勿), 至(至), 易(易)로 總 9字이었다.

字素는 漢字를 構成하는 基本要素로서, 그것 自體가 形·音·義를 모두 갖춘 것으로 《說文解字》의 部首字와 그 性格이 대체로 一致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字綴은 造字 過程에서 音이나 뜻을 區別하기 위해 쓰이는 附加的 成分을 가리키는 것으로, 直(直) 속의 ‘丨’은 하나의 字綴로 假想的인 表示일 뿐이지만, 반면 杵 속의 ‘丨’은 杵[杵]의 像을 취한 것으로서, 明確하게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字素가 된다. 그러므로 假想的으로 表示한 것인가 아니면 明確하게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字綴인지 아니면 字素인지를 區分하는 重要的 基準이 된다. 이러한 字綴은 오늘날의 漢字 속에도 남아 있지만, 단지 書體의 變化로 인해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뿐이다.

李圃가 《甲骨文文字學》에서 提示한 348個의 字素 중에 藎(藎), 璞(璞)와 같이 《說文解字》에 收錄되어 있지 않은 글자는 그 比較 對象이 없어 論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每(每), 叔(叔), 允(允), 何(何), 若(若) 등과 같이 《說文解字》 部首에 該當되지 않는 글자는 많이 있었으나, 本 論文에서는 論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字素에 대하여도 더욱 깊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李 圃,《甲骨文文字學》,學林出版社出版,1995
- 裘錫圭,《古文字論集》,中華書局,1992
- 徐中舒,《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1989
- 王宇信,楊升南,聶玉海 主編,《甲骨文精粹釋 譯》,云南人民出版社發行,2004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甲骨文編》,中華書局出版發行 1965
- 彭邦炯 編著,《甲骨文醫學資料釋文考辨與研究》,人民衛生出版社,2008
- 濮茅左 編著,《甲骨文常用字彙》,上海書店出版社,2005
- 于省吾,《甲骨文文字釋林》,臺灣大通書局,1981
- 염정삼,《설문해자주》부수자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許慎撰,《說文解字》附檢字,中華書局影印,1994
- 許慎撰,徐鉉校定,《說文解字》,中華書局,[1963]2004
- 湯可敬,《說文解字今釋》,岳麓書社發行,2001

索 引

1.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같은 글자

1)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1)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人	𠤎	𠤎	11	875	1065
頁	𠤎	𠤎	12	991	1199
欠	𠤎	𠤎	12	981	1182
无	𠤎	𠤎	13	989	1197
夭	𠤎	𠤎	14	1164	1414
山	𠤎	𠤎	14	1025	1254
晶	𠤎	𠤎	15	741	925
夕	𠤎	𠤎	16	750	933
石	𠤎	𠤎	16	1033	1282
火	𠤎	𠤎	17	1109	1368
鳥	𠤎	𠤎	18	426	515
隹	𠤎	𠤎	18	389	492
虎	𠤎	𠤎	19	527	669
象	𠤎	𠤎	19	1065	1310
羊	𠤎	𠤎	20	413	506
來	𠤎	𠤎	21	616	723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禾	𠤎	𠤎	21	777	948
黍	𠤎	𠤎	22	790	968
木	𠤎	𠤎	23	639	741
未	𠤎	𠤎	24	1598	2143
斤	𠤎	𠤎	25	1491	2050
缶	𠤎	𠤎	25	581	706
皿	𠤎	𠤎	26	533	672
壺	𠤎	𠤎	26	1167	1418
鼎	𠤎	𠤎	27	770	945
用	𠤎	𠤎	28	354	454
巫	𠤎	𠤎	28	496	648
卩	𠤎	𠤎	29	463	559
卜	𠤎	𠤎	30	349	452
一	一	一	31	1	1
五	𠤎	𠤎	32	1528	2110
十	𠤎	𠤎	32	218	313

(2)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立	𠤎	𠤎	34	1179	1431
長	𠤎	𠤎	35	1041	1292
老	𠤎	𠤎	35	940	1150
亦	𠤎	𠤎	36	1163	1412
疒	𠤎	𠤎	36	837	1015
夫	𠤎	𠤎	37	1179	1430
豆	𠤎	𠤎	38	519	663
食	𠤎	𠤎	38	569	690
鹵	𠤎	𠤎	39	1278	1660
鬯	𠤎	𠤎	39	562	687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日	𠤎	𠤎	40	498	650
豆	𠤎	𠤎	41	514	659
九	𠤎	𠤎	41	1531	2112
斤	𠤎	𠤎	42	1491	2050
力	𠤎	𠤎	42	1478	1993
率	𠤎	𠤎	43	1423	1894
日	𠤎	𠤎	44	719	901
月	𠤎	𠤎	44	743	928
水	𠤎	𠤎	45	1183	1485
雨	𠤎	𠤎	46	1240	1615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乞/气	三	彳	46	38	58
丘	凵	廾	47	924	1120
土	凵	土	47	1453	1950
丹	冫	冫	48	554	683
才	彳	彳	49	672	826
米	米	米	50	792	971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生	丩	丩	50	687	833
上	二	上	51	5	3
甘	甘	甘	51	497	649
束	束	束	52	692	840
西	西	西	52	1276	1659
亡/亾	亾	亾	53	1386	1812

2) 準字素(依存的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死	歺	歺	55	463	558
包	勹	勹	56	1020	1243
疒	疒	疒	57	837	1015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廌	廌	廌	57	1077	1333
出	出	出	58	681	830

2. 甲骨文字典과 《說文解字》의 解說이 다른 글자

1) 獨立的으로 造字 機能을 가진 字素

(1) 字綴이 붙어 있지 않은 字素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卩	卩	卩	61	999	1233
黃	黃	黃	62	1475	1990
董	董	董	62	1463	1981
匕	匕	匕	63	913	1115
乃	乃	乃	64	500	652
萁	萁	萁	65	442	541
亥	亥	亥	66	1611	2162
丌	丌	丌	68	1267	1657
午	午	午	68	1595	2142
亼	亼	亼	69	451	544
庚	庚	庚	70	1558	2123
辰	辰	辰	70	1589	2139
王	王	王	71	32	26
辛	辛	辛	72	1561	2123
戊	戊	戊	73	1551	2120
我	我	我	74	1379	1809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戌	戌	戌	75	1607	2161
癸	癸	癸	76	1567	2128
寅	寅	寅	77	1585	2138
束	束	束	78	765	942
己	己	己	78	1555	2121
異	異	異	79	253	380
巳	巳	巳	80	1591	2141
申	申	申	81	1599	2144
乙	乙	乙	82	1538	2117
丙	丙	丙	83	1540	2119
丁	丁	丁	84	1548	2119
亞	亞	亞	85	1523	2109
壬	壬	壬	85	1566	2126
古	古	古	86	217	312
克	克	克	87	773	947

(2) 字綴이 붙어 있는 字素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之	𠄎	𠄎	89	678	829
菁	𦰇	菁	90	442	541
員	員	員	91	700	849
方	方	方	92	953	1166
貞/囟	貞	囟	92	758	940

楷書	甲骨文	小篆	論文	甲骨文字典	說文解字今釋
𠄎	𠄎	𠄎	93	774	947
易	易	易	94	1063	1309
勿	勿	勿	95	1043	1293
至	至	至	96	1272	1657

